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하나님께서 주...
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해주셔서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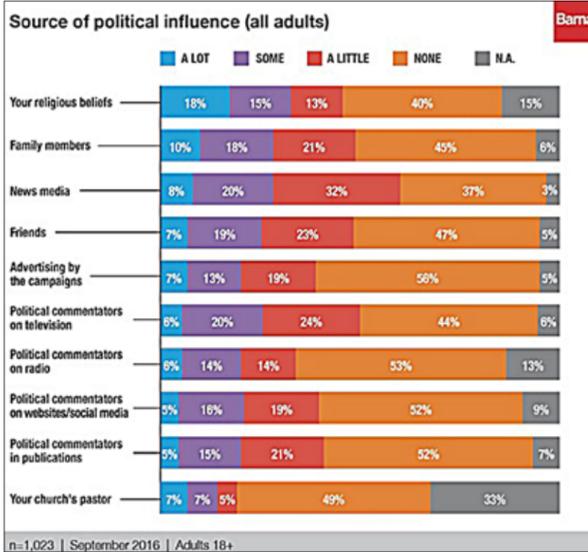
주후 2016년 11월 5일 (토) 제 160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내 신앙에 따라 소중한 한 표 행사한다!

바나리서치, "복음주의적 유권자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택하겠다" 설문 결과 발표

대통령을 선출하는 11월 8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한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잘해주는 공화당후보를, 약소민족과 이민들은 사회복지혜택에 더 중점을 두는 민주당후보를 선택한다.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배경이 후보선택에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 대통령 되기에는 시기상조라든지 또는 유대교 신자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등의 편견이 영향을 준다. 후보의 인격과 지도력에 대해서는 별로 알리고 하지 않으며 주위의 소문과 자기편견에 기초해 후보를 선택한다.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선출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족의 전통 또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오랫동안 한 정당에 소속한 충성스러운 정당인들은 정당의 후보를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의 종교와 도덕적 신념에 따라 후보선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세간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종교와 정치관계에 대한 이슈는 점차 핵심적 이슈다.
'바나리서치'는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Religious Beliefs Have Greatest Influence on Voting Decisions).



미국성인 정치 성향(바나리서치)

적 신념으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복음주의자 중 75%가 자신들의 신앙이 행위를 결정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주의

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다(22%). 그리고 가족들에게서는 21%...

(3면으로 계속)

"작은 일에 충성" ...신임회장 김홍석 목사

뉴욕교협 제 42회 정기총회, 부회장 이만호 목사

뉴욕교협 제 42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김홍석 목사, 부회장에 이만호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 김홍석 목사는 "소의 되고 힘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도우며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며, "특히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나 교계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때에 교령회장이 된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미국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고 미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뉴욕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부회장 이만호 목사는 "화합과 소통으로 예수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며, 1년동안 회장을 잘 보필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지난 31일 총회를 마친 뉴욕교협 신임회장단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감사 김영철 목사, 평신도부회장 이상호 집사, 신임부회장 이만호 목사, 신임회장 김홍석 목사, 현회기 회장 이종명 목사, 감사 김주열 장로와 김기호 목사.

지난 31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된 총회는 2명의 부회장 후보가 등록했으나 총회 3일전 김진 목사가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이만호 목사가 단일 후보로 총회에 섰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예상돼 교협 임원단 및 선관위가 신경을 곤두 세웠으나 비교적 무난하게 총회를 마쳤다는 평을 받았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김홍석 목사의 인도로 기도 이상호 집사(이사장), 헌금기도 정관호 목사(교육분과),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회계), 말씀 방지각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한나의 믿음과 기도"(삼상1:17-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믿음 없는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기도가 문제다. 기도는 대화다. 한 마디 말

하고 세마디를 들어야 한다. 응답 받는 기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응답을 알 수 있으며, 또 설교 중에 간절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다. 루터의 그 행동의 원동력은 믿음의 기도에 있었다. 우리 삶이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한다"며 미국 대선과 한국을 위해, 신앙의 회복과 도덕성 회복, 교회 회복, 차세대 성령 충만 등의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회장 이종명 목사의 사회로 회장인사, 개회기도(안창익 목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42회기 교협은 교협갱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의 임실행위원회와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할렐루야대복음화대회를 치렀으며 이외에 이영훈 목사와 조찬기도회, 에콰도르 지진구호성금 모금, 이단대책 세미나, 공로상 포상 등의 행사를 치렀다.
감사 김기호 목사는 집행부의 헌신과 수고로 수입재정이 예산에 비해 증가했다며 수입지출 결의서 결제가 100% 잘 됐다고 평하고 이영훈 목사 후원금은 교협 다락후계실 설치비용 7천 달러를 제외하고 CD로 보관됐다고 밝혔다.
교협건물 모기지는 매달 2,518.01달러가 지불되며 렌트 월 수입 3,200달러에서 남은 금액은 9월 30일 현재 18,493.39달러가 남아있다.
회계 이광모 장로는 총수입 360,862.02달러, 총지출 333,926.74달러, 잔액 26,935.28달러로 보고하면서, 지난 회기에 비해 임원들의 활동비 지출은 최소한도로 이뤄졌다고 치하했다.
(10면으로 계속)

World Bible Institu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for Los Angeles and Seoul offices.

Jo Eun Chul Pan Sa advertisement for a 20-year anniversary.

Staff list for the church with photos and names of various roles like pastor, secretary, etc.

Large advertisement for YWAM Senior mini DTS with text '인생의 전환점, 지금은...' and 'ONE WAY' sign.

#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 “헌옷”

## 뉴스위크, 패스트 패션 헌옷 폐기물 재난적 수준으로 쌓여간다고 경고(2)

섬유재활용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위원회 사장인 트랜스-아메리카의 소유주 에릭 스티븐이 직접 의류창고를 보여줬다.

지게차가 의복 봉치를 들고 코너를 돌아 높디랴게 쌓인 의복탑 위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코너를 돌아 적재구획에 높이 쌓인 다음 봉치를 집어 들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작업자들이 눈 깜짝할 새에 옷을 훑으며 쓸만한 물건을 꺼낸다. 가끔 빈티지 리바이스와 밀리터리 재킷, 촌스러운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스웨터 같은 보석을 발견할 때도 있다. 이런 아이템은 사람들이 살 만한 다른 옷과 함께 작은 통에 집어넣는다.

트랜스-아메리카는 이들 의복에 이윤을 붙여 브루클린 빈

입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미국의 헌 옷이 가격대 비 품질이 좋다고 평가하기 때

패스트패션 의복이 급증하며 트랜스-아메리카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폴리에스테르

지 않는다. 의복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지구에는 파괴적 영향을 준다. “결국 매퍼지에 묻힌다는 점에서 자원의 낭비”라고 요람에서요람까지상품혁신센터(Cradle to Cradle Products Innovation Institute)의 애니 걸링스루드는 말했다.

“지구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기업도, 소재를 만든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다. 이들 옷을 만들기 위해 새 물질을 또 소재로 써야 하는 수요가 끝없이 생긴다.”

아디다스와 리바이스, 나이키, H&M 등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계속해서 자사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고, 따라서 패스트패션 사업모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패션의 지속가능성



### 시론

##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적폐현상"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지금 한국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안개 정국이다. 일개 자연인인 최씨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다방면의 국정에 깊이 개입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을 허세(虛勢)와 세도(勢道)를 부린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 호가호위(狐假虎威)란 여우와 관련된 고사(故事)인데, '여우(狐)가 호랑이(虎)의 위세(威)를 빌린다(假)'는 뜻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위사람의 권세(權勢)를 이용해서 허세(虛勢)와 세도(勢道)를 부린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빌림의 왕자인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 하자, 꼬 많은 여우가 말하기를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나는 천제(天帝)의 명을 받아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데, 지금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제(天帝)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리라. 만약에 내가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장 설테니 내 뒤를 따라와 보거라." 여우의 당당한 말에 호랑이는 그만 속고 말았다. 결국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당당히 앞서 갔는데, 만나는 짐승들마다 슬금슬금 피하거나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인지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여겨 여우를 살려줬다는 고사이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가운데에는 완장질이 있었다. 36년의 일제 시대나 공산당이 지배할 때에 완장을 채워주면 마치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자신에게 주어진 양 허세를 부리며 죄 없는 양민들을 무참하게 밀고하며 짓밟았다. 대개는 완장을 차는 자들의 심리는 굉장한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애가 강하며,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극히 강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이들의 삶은 한순간 낙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과 사회관계를 넘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호가호위가 있다. 이것은 사대주의(事大主義, Flunkysim)현상으로 나타난다. 자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려는 의식이나 주의인데, 그 이면에는 자신의 약한 면을 숨기고 강한 제국의 문화 시민임을 은근하게 앞세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호가호위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가호위는 비단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다. 종교 권력을 앞세운 호가호위는 무서우리만큼 영혼을 파괴시킨다. 중세 카톨릭의 종교권력을 등에 업은 교황들과 사제들의 호가호위는 1,000년간 흑세무민(黑世無民)의 암흑기를 낳았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부패는 극에 달하였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1492-1503), 율리우스 2세(1503-1513), 레오 10세(1513-1521) 등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오른다. 예컨대 알렉산더 6세는 교황에 선출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려 추기경들의 표를 샀으며, 교황이 된 후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 부하들도 독살하고, 성직을 매매하며, 사형수를 돈을 받고 풀어주고, 근친상간을 눈감아주었으며, 발렌시아의 추기경인 '피터 멘도자'에게는 돈을 받고 '미소녀'를 임양할 수 있게 허락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도원은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수녀들은 사제들의 음욕의 대상이 되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면 대부분 사제로 유기하기도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는 수도원 안에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사제들을 돕는 보조 사제로 키우기도 하였다. 중세문화의 귀족부인의 정부(情夫)는 언제나 사제였을 정도였다.

일례로, 16세기 중흥적 종교개혁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사제와 여신도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다. 이러한 부패는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위성직자들도 그런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사제의 혼외관계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제의 자녀'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았을 정도였다. 더불어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기에 신학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돈으로 성직을 받아 호가호위 하였으며,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부를 중용하며 온갖 미사를 드려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베드로 성당의 건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Indulgence)를 판매하면서, 산 자는 물론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가는 직행열차라고 속였으니, 종교권력의 타락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 모두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화된 지상 교회 권력을 등에 업은 타락한 교황들과 배후의 사제들의 호가호위의 적폐현상 때문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폴리비오스가 말한 대로 우주란 같은 역사를 들고 도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순환성(Historic recurrence)이 존재하는데, 현대 정치는 물론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적타락, 물질숭배, 명예추구 현상이 중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암흑의 역사의 순환성을 무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하며 주의 이름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는 현대교회와 목회자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johndjc@yahoo.com

## 천연소재는 100% 재활용 가능하나 합성섬유는 향후 5-10년 예상 재활용기술 상용화 못되면 중고의류산업 위기,, 처리할 곳 없어져

티지 매장에 판매한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 가능한 물건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티셔츠와 바지, 방한복 등 포괄적 카테고리 분류한 후 품질과 소재에 따라 다시 세세하게 구분한다.

의복의 40%는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 미국 매장에 판매하고 남은 옷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중고 빈티지 의류는 일본에, 중남미 국가는 중간급의 물건이 수출된다. 동유럽 국가는 방한복을, 아프리카는 다른 어떤 국가도 가져가지 않는 저급의 물건을 받는다.

198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으로 중고 의류가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가격도 싸고 아프리카에서 자체 생산한 의류보다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의 헌 옷은 아프리카 시장을 독점했다. 2004년 우간다에서는 거래 의류의 81%가 중고 의류였다. 옥스팜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중고 의류는 사하라 이남 지역 의류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국가의 섬유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버린 헌 옷을 아프리카가 구

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도 조만간 변할 수도 있다. 2005년 옥스팜 보고서를 보면 케냐에서 수입하는 중고의류 중 최대 25%가 품질 미달로 판매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후 패스트패션의 시장 점유율이 폭증했고 서구 소비자 사이에서 패스트패션은 '두 번만 입어도 헤어지는 옷'과 동의어가 됐다. 아프리카의 소비자 또한 중고의복이 아시아에서 생산됐다가 영국과 미국에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아프리카로 수출된 저렴한 옷이라는 사실을 알 아낼 수 있다. 그럼 이들도 미국인처럼 그냥 새 옷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트랜스-아메리카로 들어오는 의복 중 30%는 티셔츠와 폴로셔츠다. 이들 의복은 조각조각으로 잘라서 자동차 매장이나 기타 공업을 길러 만들어져 판매된다. 오염 및 찢어진 의복 등은 의복 중 20%는 공장으로 운송된 후 다시 미세한 천 조각으로 절단돼 건물 단열재나 카펫 충전재, 자동차 바닥 매트 등에 들어간다. 트랜스-아메리카에서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경로다.

나 폴리-면 혼방으로 만든 의복이 많아졌다"고 스티븐은 말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의복은 걸레나 공업용 섬유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시장은 요즘 푼돈밖에 벌지 못한다. 옷의 절반이 구매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가치는 낮더라도 자동차 매장의 소비재로 재활용하는 게 매퍼지로 가는 것보다 낫긴 하다. 그러나 이들 제품 또한 얼마 못 가 매퍼지로 향한다. 단 열재 또한 벽에서 뜯겨지거나 자동차에서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모든 것은 쪼개고 쪼개져서 결국 매퍼지로 향한다.

의복을 땅에 묻는 것만으로도 지구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비용은 여기에서 그치

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바로 100% 재활용으로 재료를 구하는 것"이라고 글로벌 럭셔리 지주사 케링의 마리-클레어 다보가 보그 잡지 인터뷰에서 말했다(케링은 구찌, 알렉산더 맥퀸, 생로랑, 스텔라 맥카트니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다). "기존 소재를 재사용하고, 새로운 소재로 변화시키고, 섬유를 다시 뽑아낸다."

제품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100% 재활용 기술은 생명의 자연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운동가에게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꿈과도 같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cp@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30th Anniversary 1986-2016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 “C 이하 받으면, 아빠가 선물 사줄게!”

## 뉴욕타임스, 대만계 광고대학원 학생이 털어놓는 ‘고양이 부모’ 가 내게 준 선물 소개

이민 1세대로서, 대부분의 아시안 부모들은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국, 대만,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 역시 고향에 있는 부모들의 ‘원격조정’과도 같은 바람대로, 전공을 결정하고 수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현지 부모들에게 아시안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스런 교육열은 말 그대로 “호랑이 어머니”(타이거맘)라고 불리울 정도이다.

그러나 2015년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플로리다 광고대학원에서 광고 카피를 전공하고 있는 케이트 차아(Kate Chia)는 자신의 부모가 ‘호랑이 부모’가 아닌 ‘고양이 부모’였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주신 선물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My Asian Pussycat Parents).

꿈의 학교였던 뉴욕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부모님도 축하해주셨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내가 그토록 경쟁이 심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나의 완벽주의적 기질을 부추기지 않은 건 훌륭한 양육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제가 C를 받아오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신 적이 있을 정도였다.

와 거리가 멀었다. 우수한 성적보다는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C를 받아오면 선물을 주겠다는 말에 나는 걱정을 덜었고 부담감도 덜 느끼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쪽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성적이 떨어질까 압박을 느끼지는 않았다.

뉴욕대에 진학한 후 나는 마취과 의사의 꿈을 품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기화학 중



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성실함의 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재적 동기란,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국 인구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비리그 대학 재학생의 20%가 아시아계일 정도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시아계 대학생은 백인 대학생에 비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실행

- 1. 스스로 성취욕 키울 수 있는 공간
2. 목표 향해 달릴 수 있는 정신건강

외동딸인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대만에서 LA로 이민을 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몇 달 간 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 때문에 미안해하며 공부했다. 안절부절하는 나를 본 아빠는 “이렇게 하자. 네가 C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내가 선물을 사줄게.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아무 것도 사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선물이 필요가 없을 테니까”라고 말씀하셨다.

보다시피 나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아시아계 “호랑이 부모”

간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2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의대 진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걱정 때문은 아니었지만 결국 의대 공부에 별로 적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공을 바꾸었다. 2학년 때 심리학 개론을 듣고 흠뻑 반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광고대학원에 진학했다.

나는 성적 타령만 하지 않은 부모님 덕에 나 자신만의 성취욕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부

의미이다. 반대로 부모의 칭찬이나 돈, 인정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이는 외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내재적 동기에 의한 목표 추구는 더 강력한 힘을 안겨준다. 부모로부터 높은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은 아이는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형성할 기회를 잃게 된다.

“호랑이 부모”의 양육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잘 나타난다. 아시아계는 미

에 옮기는 학생들도 있다. 코넬 대학 캠퍼스에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1명인데, 그 중 13명이 아시아계였다. MIT에서도 지난 15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42%가 아시아계였다.

나는 C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나에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스스로 성취욕을 키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정신 건강이다.

## 내 신앙에 따라 소중한 한 표 행사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TV 정치 해설 쇼나 대선 유세 그리고 선거용 홍보 매체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결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있다.

복음주의자처럼 중생을 경험한 비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 역시 종교적 신념을 후보나 정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다(30%).

명목상 크리스천, 즉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무니만 크리스천’인 그룹은 현재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복음주의자나 중생을 경험한 크리스천들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 △가족들(12%) △친구들(11%) △대선 유세 광고(11%) △뉴스 보도(10%) △종교적 신념(10%) △교회 목회자(9%),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경우, 뉴스 보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8%), 그리고 종교적 신념(15%) 그리고 TV에서 진행되는 정치 해설 프로그램(12%)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회의론자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아무런 종교적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5% 영역에서, 가족들, 뉴스 보도 그리고 TV 정치 해설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새로운 이메일 주소 - NY: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

## 소망 칼럼

###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대로 행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키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결국 망하고 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어떤 노인이 길을 걷다가 네 거리를 만나서 어느 쪽으로 갈까 망설였다 마음 속에 동쪽으로 갈 것을 정해 놓고, 그래도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는 동쪽이 아닌 서쪽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다시 지팡이를 집어던졌더니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켰다. 그래서 노인은 기뻐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대로 동쪽을 향해 걸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든 행동한다”는 말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한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지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신다.

물질의 소유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질은 인생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물질은 다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거기에만 도취되어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아 때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 야고보는 장수하기를 떠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고 했다. 일 년을 계획하면서도 눈앞의 일은 예측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계획성 있는 삶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고 물으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비록 미래 지향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불확실한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불확실하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삶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허탄한 삶을 사는 자이다.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하시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뽐내는 자들이 많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망하고 후회만 남게 된다. 테일러(Taylor)는 “주님의 뜻을 너희 뜻처럼 향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실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은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격조 높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

nammicj@hanmail.net

## 11월 6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6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5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 WE THE MESSENGERS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GKYM 유스

일반등록과 같은 회비입니다 (13세-17세)

문의

www.gkym.org  
rochestergkym@gmail.com

### 주강사/크리스찬 아티스트

 조지 배워 OM 창립자	 임 은미 케냐 선교사	 마이클 오 국제 로잔운동 총재	 유 제이 케이팝 스타
 김 혜택 뉴욕 중신교회 담임목사	 찰스 지머만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 및 비블리칼 신학교 교수	 노 승환 토론토 밀양교회 담임목사	 AMP 크리스찬 래퍼
 정 민웅 캐버넌트 헬로십 교회 담임목사	 박 형은 중앙 선교교회 담임목사	 백 승환 마이애미 캐버넌트교회 담임목사	 장 종택 찬양 사역자
 노 희승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김 은열 뉴욕 중신교회 EM목사	 마크 최 뉴욕 IN2교회 담임목사	 브라이언 김 찬양 사역자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ORGANIZATION GKYM INTERNATIONAL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 김치 명상

젊었을 때는 양식과 일식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식이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잘 차린 식당의 요리가 아니라 아내가

차려주는 소박한 집밥이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구운 김으로 싸서 맛있게 익은 김치와 함께 먹는 게 최고로 맛있습니다. 아

내는 나이가 들어가며 예전보다 밥하는 것을 덜 즐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더 집밥이 좋습니다. 특히 아내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날에도 서둘러 집에 들어와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야 할 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하루 삼시 세 때를 다 집에서 챙겨 먹는 '삼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밥을 먹을 때 자주 찾는 음식은 당연히 김치입니다. 저는 요즘 김치의 맛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화 기능이 약해서 매운 김치를 물에 씻어 먹어야 했던 제가 요즘은 매운 김치도 곧잘 먹습니다.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는지 김치를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고추를 먹지 못하면 혁명도 못한다'고 말한 중국의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서 '김치를 먹지 못하면 큰일을 못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마니아는 아니지만 점점 김치가 당기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김치 전문가에 의하면 김치는 적어도 다섯 번 죽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배추를 밭에서 뽑을 때 죽고, 배추를 반으로 쪼갤 때 죽고, 배추를 소금물에 절일 때 죽고, 배추를 매운 고춧가루와 새우젓으로 양념할 때 죽고, 그리고 배추를 김치냉장고 넣거나 김장독에 담아 땅속에 묻을 때 죽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김치 전문가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김장독에서 김

치를 꺼내 칼로 조각조각 썰 때 죽고 그리고 김치가 사람의 입속에 아삭아삭 씹히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김치는 적어도 5-7번의 죽음을 통해 제 맛을 냅니다. 죽음을 통한 영혼의 주장을 하는 마니아는 아니지만 점점 김치가 당기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치를 밭에 엮어 먹으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와 신앙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가 죽어야 제 맛을 내는 것 같이 사람도 제대로 죽어야 신앙인의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을 김치와 비교해봅니다. 나는 매일 밥상에 올라와도 질리지 않는 편안한 김치 같은 사람인가? 나는 죽고 또 죽고 새롭게

태어난 김치같이 '자아'가 죽어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오래 인내하고 속성하여 깊은 맛을 내는 김치 같은 성숙한 신앙인인가? 나는 양념을 받아들여 간이 골고루 배어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김치같이 조화롭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오늘 저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위에 적당하게 익어서 감칠 맛 나는 김치를 올려 먹으며 새롭게 결심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또 죽고,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성숙하여 모두에게 김치같이 유익하고 감칠맛 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산정교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문열씨의 인기 많았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개 없는 것처럼 추락하는 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다 날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날개를 어떻게 다느냐입니다. 누가 달아주었느냐에 따라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날개는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성령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달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까지 힘써 날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속의 하만의 날개는 세상의 간교한 지식과 권모술수로 얻게 된 잘못된 날개였습니다. 헛된 날개였고 교만의 날개 이었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불순종의 날개였습니다. 하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만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비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모르드개만 죽이는 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왕을 은 일만 달란트로 설득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허가까지 얻어내었습니다. 인생의 사악한 지혜로 만든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간 하만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성을 들락거리다 보면 아직도 성문 앞

려고 교수대를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높이로 세웠습니다. 50규빗은 23미터입니다. 이 높이에서 사람을 달아매면 아마 끌어올리려다가 죄인은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교수대를 만들던 밤에 바벨론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 다. 수많은 밤을 왕이 보냈지만

왕은 이일로 기분이 많이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나의 생명을 즉 바벨론왕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반대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이 잠이 안와서 책을 읽으면서 뒤척이는 시간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자기가 만든 높은 교수대에 목 대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얻으려고 왕궁 뜰에서 왕의 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왕은 왕궁 뜰에 있는 하만을 발견 합니다. 그리고 어전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들어온 하만에게 왕이

야 했습니다. 하만에게는 잠으로 끔찍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왕에게 갔다가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그를 존귀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하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 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집으로 와서 이 번뇌가 사라지기 전에 내시에게 전갈이 옵니다. 왕비가 배후신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만은 자기만 초청했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착각속의 이 잔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의 최후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 안오는 밤이 과연 바벨론 왕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잠 안오는 밤은 누구라도 다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생리 현상일 것입니다.

바벨론왕의 잠 안오는 그 밤은 역사를 변하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밤이고 하만이 추락하고 모르드개가 비상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역사가 변하던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왕에게 잠이 안왔던 그 밤이 불신자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성도의 눈으로 보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만은 그 밤에 바벨론왕이 잠들지 않게 만들어 궁중일기를 듣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 못드는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잠 못드는 밤이 오면 TV나 단정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시나 보 다라고 아시고 궁중일기는 없으니까 성경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 안오는 밤에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항상 작은 일과 큰일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조심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 추락하는 하만 (에스더 7:1-10)

이 밤은 아주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잠이 안오는 밤이 있었지만 이 잠 안오는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다른 날 같았으면 TV(?)나 보던지 아니면 술이나 마쁨으로 잠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내 세레스와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왕이 특별히 자기만 잔치에 초청했냐고 자랑했습니다. 이때 그 아내 세레스와 함께한 친구들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 나쁜 모르드개를 오십 규빗이 되는 높은 교수대에 목대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인들에게 명하여 50규빗이나 되는 교수대를 자기 집 뜰 안에 만들게 합니다. 기본 흉계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

먼저 묻습니다. 만일 이 왕이 누군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 는게 가장 좋겠냐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 생각한 대답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의 거리거리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이 좋겠습니 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지금 즉시 성문 앞에서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 모르드 개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개를 왕의 말에 태워 왕복 과 왕관을 쓰고 입혀서 성중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드개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외쳐

의 만찬이 되고 맙니다. 하만은 그 잔치상에서 끌려나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50규빗 높이의 교수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의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만을 추락시키시고 모르드개를 높이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큰 일만 주관하신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나 대통령이 뽑히는 일 같은 큰일만 하 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은 우연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크고 대단한 일만 중시 여기고 사소한 일에는 세상과 똑같이 행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작은 일 일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의미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마태복음2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10면으로 계속)

# 뉴욕총신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총신교회 2대 담임 김혜택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관계로 3대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지원자격

- RCA(Reformed Church in America) 신학과 본 교단 사역에 결격사유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M.Div. 이상)
- 목사안수 후 7년 이상 전임(full-time) 목회경력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 추천서: 목회자 포함 3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 접수 가능)
-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철학 및 비전, 본인과 사모님 신앙간증문 각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설교: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편(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기타: 현재 사역하시는 교회 최근 4주간 주보

## 3 제출처

- 이메일: choongsynchurch@gmail.com
- 우 편: Choongsyn Reformed Church in NY (Attn: 청빙위원회) 153 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 4 제출마감

2016년 12월 31일

## 5 문의

-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발송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확인은 이메일로 통지해 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www.choongsyn.net 뉴욕총신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유약하고 수동적인 삶 서점가의 주동 베스트셀러들은 그 시대 사회적 체제를 반영한다. 최근 한국 서점가에서는 항 우울제와 같은 세상살이에 대한 수동적인 순응과 이해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 사랑, 관계, 만남 등의 삶과 아주 친숙한 소재의 솜사탕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쉽게 빠져들도록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면, 단 한 시간가량의 깊이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생각의 여과를 생략해버린 채 즉각적인 감동에만 머물도록 하는 감성표 피만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근자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세태가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된다. 예전에 비해 진취적이지 못하고 유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변모해감을 보는 것이다. 풍랑 많

데서 스스로 그 위대한 꿈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절망한다. 그러나 그 절망은 하나님에 주신 꿈 앞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전향된다. 주님 주신 꿈이 너무나 위대하고 커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벽찬 감각이 있기에, 밤을 새워 주께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의탁하게 되고, 마침내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인생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야성이다.

**입맛에 맞는 위로-동남정**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영적 야성의 부재를 보게 만든다. 혹자에겐, 당신은 풍랑 많은 인생의 밤에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개 공통의 답을 말한다. '나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지 마세요. 살아 있음의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라고 대답한

는 설교동남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세상은 온통 고단한 인생길의 연속  
고통의 문제에 대해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각지를 다녀 봐도 이 세상에 안전한 위로만을 제공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음을 본다. 한국에서는 젊은 청춘이어서도 일할 곳이 없고, 취직이 되어도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스트레스가 많음을 고백한다. 중국에 가보면,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몇몇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 자체가 한국의 수십년 전과같이 대단히 척박함을 본다. 인도는 높은 빌딩사이로 개, 소, 돼지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손에 든 물병하나로 대소변을 해결함을 본다. 필리핀은, 선망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빌딩 앞에 총을 들고

각한 일교차에도 자신의 몸을 가눌 여건이 없어서 내팽개치듯이 길가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인도의 밤에 1-2불하는 담요를 들고서 그들의 육신의 고단함을 덮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이 일에 같이 헌신하는 현지인들도 있음을 본다. 같은 고통의 밤하늘아래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로 저들의 문제를 설명하기는 심히 부족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만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가보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인한 영혼의 기쁨과 살아있음이, 비록 척박한 흙바닥 예배당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임에도 감격에 찬 웃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본다. 아무런 찬양의 도구나 현대의 문명의 도구를 가지지 못한 채 필자의 수십년 전 어린 시절 교회당보다 못한 형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 풍랑 많은 세상의 고단함과 피곤함에 대하여

- 입맛에 맞는 위로를 넘어선 영적회복 -

은 인생임에도 삶의 고난과 역경에 힘겹게 맞서는 야성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야성이 부재한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렵고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난의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야성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순응함에 빠진 걸음들을 보인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속에 꿈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이도 따라가는 이도 보기가 어렵다. 말씀 안에 받은 꿈과 소망 때문에,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영혼에 들은 바가 없으니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이 없으니 기도도 없는 영적부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는 동시에 험한 세상가운

다. 잔뜩 고통과 절망에 짓눌린 채로 '아프다'고 말하기에 급급하면서 그 아픔에 대한 위로만을 찾아 피하기급급할 뿐, 그 고통의 풍랑을 허용하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디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더욱 재촉하는 일들이 오늘날 인터넷 문명 속에서 동남정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유를 사고파는 '동남정'이 세간에 알려졌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모유를 인터넷에서 구입해 먹이는 일들이 얼마들에서서 상행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는 한층 더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말씀의 진지한 배움 없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마구잡이로 설교를 선택하거나 다운 받아 들

지키는 가디언의 삶이며, 영국은 모든 것이 소규모로 비싸게 움직여야 하는, 이제는 기울어지는 해를 보는 느낌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한국, 중국, 영국, 인도, 필리핀... 등등 그 어느 곳에도 인생자체는 소망이 부재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작지만 밝은 소망의 빛이 어둠속에 영롱하게 존재함을 본다. 그 빛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영적 생기를 회복하는 곳에 있더라는 것이다. 고통의 끝에서 즉각적인 위로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고통의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를 다룰 수 있는 영적야성의 강건함이 절망의 자리에 빛이 되더라는 것이다.

세상에 방임하지 않는 영적회복 인도의 밤에는 노숙자들이 심

편임에도, 저들은 자신을 광야 같은 인생에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채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를 향해 진일보 하더라는 것이다.

**환경과 조건이 아닌**  
환경과 조건의 유무가 많은 부분 인생의 승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절대적이지 못함을 분명히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강단 있는 분으로 평가되던 그분의 영적인 피폐함이 얼마나 크게 온 국민에게 상처로 드러나고, 본인에게 죽어보다 더한 불명예를 안아 주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의 승리는 결코 세상의 좋은 조건 굽어모으기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이 육을 지배함을 증거 한다. 영적감각을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1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499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롬1:17절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솔로몬정 집사

**A:**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2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부로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수도사로 로마를 방문하고 스칼라 산타 성당의 27개의 계단을 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고행함으로써 자기의 죄 용서의 기쁨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루터에게는 전혀 죄사함의 기쁨이 오지 않았습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오르다가 갑자기 그 전에 읽었던 롬1: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The Just shall live by

죄는 복음의 의로만 해결된다는 깨달음 얻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 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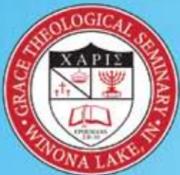
Faith). 전에도 수없이 듣고 읽은 말씀이지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무릎으로 기는 고행으로 죄용서 받거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그 길로 루터는 이신칭의의 도를 깨달아 그 영감과 힘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캐톨릭이 성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 재정이 부족하자 뉘른베르크라는 수사학자를 동원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부터 499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부패한 로마캐톨릭교에 대항하여 독일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보름즈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게 되었는데 새로이 황제가 된 찰스 5세는 교황과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루터는 법정에서 "저는 성경과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 한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순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있나이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제국 밖으로 몰아내도록 결정됐고 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에게 몸을 위탁하고 그 후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여 사제들만 가진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이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표어는 5가지인데 솔라 피데(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오직 예수), 솔라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이산한 힌디(The Diaspora Hindi)



11개 국가에 거주하는 11개의 이산한 힌디 종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인도 밖 외국에서 살고 있는 180만명의 힌디어 사용 인구 중에서, 대다수는 접경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에도 큰 힌디어 사용 공동체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도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힌디어 사용자들은 다른 힌디어 사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Hindi"라는 용어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복합체를 적절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힌디는 단순히 언어상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집단들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힌두-무슬림 경쟁구도를 포함하여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집단 공동체 의식(group identity)을 가지고 있다.

인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높은 카스트 신분계층이며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이 힌두문화의 다양한 면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다.

## 삶의 모습

힌디어는 인도-아리아계 언어이다. 많은 힌디 단어들은 산스크리트어(Sanskrit, 범어)에서 빌려온 것이고, 데바나가리 문자(Devanagari letter)로 쓰여진다. 예전에 우르두 어족(대부분 무슬

림)과 힌디 어족(대부분 힌두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이어졌다. 그 때 이후 지금까지 두 집단 사이에는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서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힌디어는 인도의 공용어가 됐고, 우르두어는 파키스탄의 공용어가 됐다.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현재 "인도-파키스탄인"이라 불리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85,000명의 무슬림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될 때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힌디어계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 집단으로 나뉜다.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힌두교도들은 "카스트"라 불리는 4개의 주요 사회계층으로 나뉜다. 이 집단들은 "정결과 불결"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계층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신분 서열상으로 볼 때, 세습되는 4개의 집단은 승려와 학자들인 "브라만", 통치자들과 군인들인 "크샤트리아", 상인과 전문직업인들인 "바이샤", 노동자들과 하인들인 "수드라"이다. 이 4개의 카스트들은 각각 그 안에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하위 카스트들은 다시 작은 단위들로 나뉜다.

카스트는 직업 외에 관습과 풍속과 습관 등에 근거를 둔 문화집단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위 카스트들과 그 아래 작은 단위들로 구성된 힌두 사회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은 더 높은 카스트의 생활방식과 관습과 언어습관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카스트 간에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 비록, 브라만이 위대한 종교적이고 학술적인 카스트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었던 교육과 학습은 현재 힌두의 모든 종족과 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힌디어는 사업과 교육과 언론의 언어이다. 이주한 새 나라에서 힌디어족들은 모든 큰 도시에서 인도산 향료 가게와 비디오 대여점과 작은 상점들을 차렸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방글라데시에 사는 일부만은 농부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층이나 되는 콘크리트 주택에서 살고 있다.

힌디어족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 점점 서구화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는다. 또한, 힌두 여자들은 이혼과 재혼의 권리를 갖고 있다. 티(dhoti, 힌두남자가 무릎을 덮도록 치마처럼 입는 흰색의 하의)를 걸친다. 그리고 이들은 공식적인 행사 때나 이따금씩 "사리"(sari, 몸 전체에 기다랗게 늘어뜨리는 드레스 같은 옷인데, 한쪽 끝을 밑으로 늘어뜨리고 다른 끝을 허리로부터 감아 쓴 부분은 어깨 위나 머리에 쓰거나 한다)를 걸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서구식 옷을 입는다.

무슬림의 힌디 어족 여자들은 여전히 "푸르다"(Purdah)의 전통을 지키는데, 이것은 격리돼 있다는 의미에서 몸 전체, 특히 눈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푸르다는 서구화와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약화된 격식의 다양한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 신앙

힌디 어족의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인데, 힌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신들을 달라고 제안을 피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와 제물을 받쳐야 한다고 믿는다.

힌두교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다시 환생한다. 즉, 영혼은 동물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 중에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는 신성시 되고, 다른 동물들도 숭배된다.

"업"(karma)의 원리에 따르면, 현재의 모든 행동들이 내세에 영혼이 어떻게 환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영혼은 더 높은 신분으로 환생할 것이지만 사람이 악하게 산다면 그 영혼은 더 낮은 지위로 환생할 것이다.

## 필요로 하는 것들

힌디 어족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영화 "예수"가 있다. 그러나 힌두인들은 먼저 수백만의 거짓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기도만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예수 무덤, 수백년 만에 공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뒤 사흘 간 안치된 곳으로 알려진 무덤이 수백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묘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서다. 무덤은 1555년 대리석으로 봉쇄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들이 예수의 묘지를 복원하기 위해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장소로 알려진 곳을 봉인한 대리석 판을 들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도르레로 대리석 판을 들어내니 아래에 공간을 메우는 잔해가 층층이 쌓여있었다고 CBS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 잔해들을 치우고 나자 또 다른 대리석 판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리석 판은 회색으로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으며 한가운데에는 금이 있었고 아래에는 희끄무레한 막이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고학자 프레드리크 허베르트는 이 대리석 판이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베르트는 "이게 원래 있던 석판이다. 믿을 수가 없다. 더 봐야 할 것이 많다"며 "분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몸이 놓였던 돌의 본래 표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부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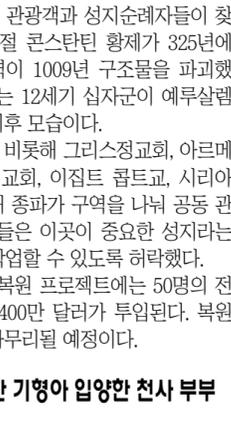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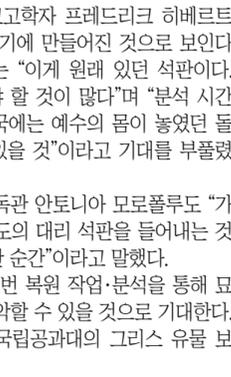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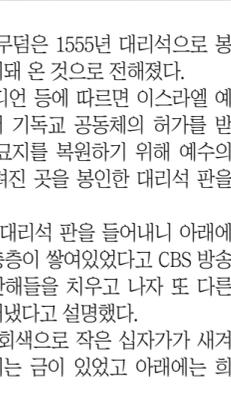
복원팀의 선임고고학감독관 안토니아 모로폴루도 "가로 91cm, 세로 152cm 정도의 대리석 판을 들어내는 것이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투입된 전문가들은 이번 복원 작업·분석을 통해 묘지의 원래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원은 그리스 아테네 국립고고학대의 그리스 유물 보존팀 등이 맡고 있다.

성묘교회는 전 세계의 관광객과 성지순례자들이 찾는 명소다. 로마제국 시절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건립했으나 이슬람 세력이 1009년 구조물을 파괴했다. 지금의 교회당 형태는 12세기 십자가인 예루살렘을 재현하며 복원한 이후 모습이다.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교회, 에티오피아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등 범 기독교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공동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교파들은 이곳이 중요한 성지라는 점을 감안해 60시간만 작업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복원 프로젝트에는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약 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복원 프로젝트는 내년 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높다.

다행히 아담은 자궁 속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잘 태어났다. 그러나 아담을 보고 경악한 친부모는 아이가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던 아담의 담당 간호사 제시카는 아담이 불쌍했다. 제시카는 같은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담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담을 입양한 것.

아담을 입양한 부부는 아담의 얼굴과 몸을 일반인처럼 만들어주고자 존 반 알스트 의사가 수술을 부탁했다. 또 아담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담의 수술비용을 모으는데 동참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람이 넘치는 부모에게 입양된 아담은 건강하게 새로 생긴 동생과 함께 즐겁게 뛰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 이탈리아 중부 6.1 강진...교회 피해 많아

이탈리아 중부 26일 오후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해 주택들이 붕괴되고 일부 주민이 다쳤다고 영국 BBC방송이 긴급 보도했다. 이번 지진은 177km 떨어진 수도 로마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BBC에 따르면 오후 7시10분쯤 중부 마세라타 지역 비소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2시간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6.1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진으로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되거나 벽면이 부서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한 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회와 같은 높은 건물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밤에 발생해 27일 날이 밝으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여자에 대비해 서둘러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98명이 숨진 지 2개월 만에 또 지진이 일어나자 당시 지진과 관련됐을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지진도 규모 6.2로 이번과 비슷했고 발생한 지역도 비소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 미얀마, 이슬람테러조직 토벌 벌이 소수민족 탄압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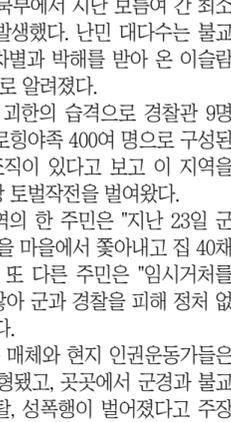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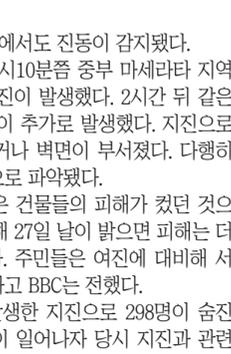
무장괴한의 경찰차소 습격으로 촉발된 미얀마군의 잔당 토벌작전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변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구호단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 북부에서 지난 보름여 간 최소 1만8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난민 대다수는 불교도 중심의 미얀마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온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아족으로 알려졌다.

미얀마군은 이달 9일 괴한의 습격으로 경찰관 9명이 숨진 사건의 배후에 로힝아족 4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을 봉쇄한 채 대대적인 잔당 토벌작전을 벌여왔다.

라카인 주 마웅도 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 23일 군경들이 로힝아족 2천 명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집 40채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임시거처를 세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군과 경찰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로힝아족 인터넷 방송 매체와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주민 수백 명이 즉결 처형됐고, 곳곳에서 군경과 불교도들에 의한 고문과 약탈,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인권 특별조사관은 성명을 통해 "집과 이슬람 사원을 불태우고 특정 한 신앙의 주민을 모아 총살한다는 소식은 우러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군과 경찰이 로힝아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우 흐타이 미얀마 대통령실 대변인은 "군과 경찰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로힝아족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군경이 도착하자 스스로 달아난 것이고, 방화 역시 증거를 인멸하려는 테러 용의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라카인주에서는 2012년에도 불교도와 무슬림 간에 대규모 유혈충돌이 벌어져 200여 명이 사망하고 14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 '드론의 두 얼굴' 유류·구호역명 후 모슬에선 IS 신병기

취미 생활의 도구나 의약품 구호, 상업적인 편의 등에서 사용됐던 드론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전투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IS는 이전에도 드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연합군의 모슬 탈환작전에 대해서는 드론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활용 방식도 다양해졌다.

지난달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육군 스티븐 타운센드 중장은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IS가 작은 드론을 이라크와 미국군을 정찰하거나 폭발물을 떨어뜨리는 데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센드 중장은 "IS가 간헐적이거나 산발적인 수준이 아니라 비교적 꾸준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드론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며 "정찰이나 감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로켓이나 박격포를 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IS가 기지 근처에 착륙할 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폭발해서 인명피해를 내는 '트로이의 목마' 드론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주 전에는 이라크 북부에서 이 같은 방식의 드론 공격이 감행돼 쿠르드 자치정부 민병대 전투원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미군의 전자전(戰) 시스템이 모슬 근처에서 비행하던 IS의 드론을 목적 후 15분 만에 격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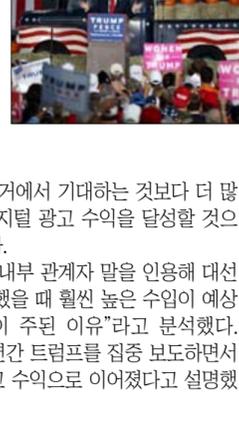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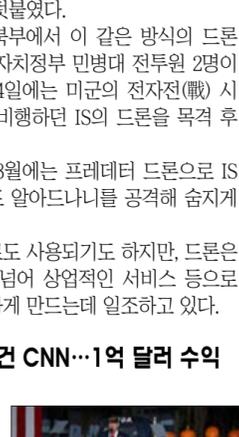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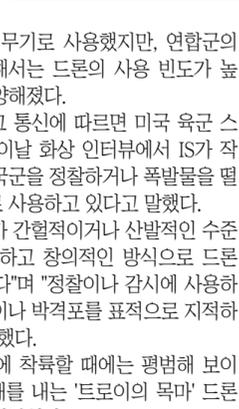
미군은 반대로 지난 8월에는 프레데터 드론으로 IS의 2인자 아부 모하마드 알마드니니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드론은 최근에는 취미 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서비스 등으로 활용되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 트럼프 덕에 웃은 건 CNN...1억 달러 수익

대선을 2주 앞두고 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덕분에 CNN방송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25일 CNN이 대선 특수로 올해 전례적인 선거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1억 달러의 방송·디지털 광고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NPR은 북부의 CNN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선 이 치러진 예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수입이 예상된다고 "트럼프 돌풍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CNN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트럼프를 집중 보도하면서 시청률이 올라갔고 광고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에컨대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다국적 맥주회사 안호지-부시 인베브 USA는 올해 CNN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와 스폰서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강커 CNN 월드와이드 회장은 이달 초 허버드대에서 강연을 갖고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미리 인지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며 공격적인 보도를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야말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생겨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클린턴은 러시아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므로 미국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힘을 합치면 승리는 문제였다"며 당내 결집을 요구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주당 인사를 기용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격 대상은 클린턴뿐이 아니었다. ABC뉴스에 따르면 그는 플로리다 유세장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This guy is such a phony guy). 우리는 사기꾼 그룹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선거조작설을 언급했다.

## 산채로 목을...잔인한 할랄 도축에 네티즌 경악

영국의 4대 명문대학의 하나인 브리스틀대의 연구원들이 이슬람교의 할랄 도축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영국의 언론들이 브리스틀대가 발표한 할랄 도축에 대한 보고서를 보도하며 할랄 식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슬람 규칙에 따르면 동물은 도축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EU) 규정은 도축 전 동물을 기절 시켜야 한다고 돼있지만 영국은 무슬림과 유대인의 유훈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할랄 도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이란인교회(이하)의 이만석 목사에 따르면 할랄 도축은 다비하(Dhabihah)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고기와 고기로 만든 음식을 전체적으로 뜻하기도 한다.

이 목사는 "다비하는 4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도축인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 도축인은 '비스밀라 이르라흐만 이르라힘'(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과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크시도!)란 구호를 외치며 살아있는 가축의 목, 식도, 정맥을 날카로운 칼로 단칼에 잘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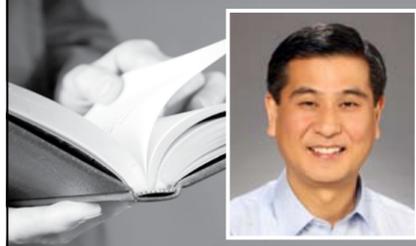
둘째, 도살할 가축의 머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두어야 한다.

셋째, 미리 전기충격기를 기절시키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살아있어야 한다.

넷째,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피가 완전히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이때 알코올 등 다른 것을 사용하면 안된다.

이 목사는 "피가 사방으로 튀어 비위생적이며 고통 속에 죽어가게 방치하므로 동물학대 행위다"라며 "또 고통 속에 죽어감으로 체내에 독성이 생겨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할랄식품이 웰빙이며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할랄 도축을 본 네티즌들은 "하는 것이 ISIS랑 다를 게 없다" "이런 거보면 어디까지 문화충격을 존중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할랄 도축하면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어 버리고 피 솥에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목숨을 붙여놓고 피를 쏟게 하네"라며 잔인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 (2) - 그는 누구인가? (b)

지난 회 요약: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부이다. 그의 신학은 당대와 후대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의 사상은 매우 독특하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토대로 형성되었지만,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체험적 신앙 역시 빠뜨릴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저술한 "참회록"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세상의 어둔 세력에 불합혀 방황하던 그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얻으려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소개한다.

### ■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을 선택하려면, 주저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둔 신앙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자주 모니카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가 세상의 일에 취하여 육체적으로 방탕하며 영적으로 방황할 때에도,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의 길로 인도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려 하였다. 모니카는 일반적인 어머니 이상이였다. 경건한 신앙의 모범이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담은 말로 훈계를 받은 것 이외에, 어떤 환경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

이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경건한 능력이 자신이 변화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자신을 위해 육체적 산고뿐 아니라 영적인 산고를 겪었다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이 책에 드러냈다. "주님은

어 방탕한 삶을 떠나지 않았다. 몸과 머리가 커질수록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던 그 당시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죄를 사랑하던 마음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환경에 놓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회고록 제 3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모니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 소원의 전부이며 확신이었습니니다"(참회록,

부르짖었다. 그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한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니카에게 알렸다. 평생 기도제목이었던 아들의 회심 소식을 전달받을 때 크게 기뻐할 어머니를 상상하며 달려가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때 모니카의 반응이 어떠한가?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어머니는 한없는 승리와 기쁨에 도취하셨습니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님을 찬양했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나아가서 아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형용할 길이 없이 큰 충격이었다. 그는 모니카의 눈을 감겨드렸다. 그와 주위에 있는 가족이 큰 슬픔에 잠겨 함께 대성통곡을 하였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슬픔 속에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려했다.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와 인내로서 하나님을 찾았기에 앞으로 효도하며 사랑의 빛을 감으려하니, 훌쩍 곁을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심히 아팠다. 어거스틴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참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슬픔의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지만, 애써 참고 또 참았다.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갔음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려한 것이다.

장례식을 마치고 홀로 있는 시간에 어거스틴은 과거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이때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과 통곡이 쏟아졌다.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

"주님! 이 책을 기록하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부족한 자식을 위해 우셨는데 나는 이제 겨우 어머니를 위해 한 시간 남짓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사람이 있다면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당신에게 지은 죄를 인하여서 슬퍼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참회록, 9.12).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모니카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모니카의 경건한 삶과 눈물의 기도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그는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녀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모니카의 기도는 죽음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 어머니 모니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보여 참회록에서 경건한 사랑 표현...모니카의 기도는 죽음 후에도 계속 열매 맺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이미 거룩한 성직은 예비하였고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 성소의 기초석을 놓으셨습니니다. 물론 아버지도 예비신자였지만 그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어머니는 내가 죄악의 길에서 방황할까 하여 염려하고 있었습니니다"(참회록, 2.3). 어거스틴은 어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들이 즉시 죽을 수도 있다는 모니카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서둘러서 세례식을 베풀려하였지만 병에 들어 그 기회를 놓쳤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훗날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셈이지만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의 학창 시절을 '학교공부 잘 할 하는 불량소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남다른 학문성을 지녔던 학생이었다. 그 당시 고등학문을 습득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세상의 것에 심취되

권에 적힌 기도문을 소개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 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적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그 눈물을 떨하지 않으셨습니니다"(참회록, 3.19).

모니카는 세상의 눈에 빠져 들어가는 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를 올렸을 뿐 아니라 어거스틴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를 찾아 밀라노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풍랑을 만나 많은 고생을 감수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둠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건져내

3.19). 그는 어머니께서 자신을 방문하는 중에도 자신을 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밤을 새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보인 것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하소연이 아니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 ■ 하나님의 은혜

결국 어거스틴이 영적 방황을 끝내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변한 가슴을 못이기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지 시작했습니다"(참회록, 8.12).

어거스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어거스틴은 자신이 이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가 자신에게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타게 절규하는

습니니다. 당신은 그의 눈물의 기도와 탄식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축복을 나에게 보아도 그에게 더욱 베풀었습니다"(참회록, 8.30).

그는 자신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33세가 되던 해에 5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 제 9권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먼저 이곳에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는 글을 담았다. 모니카는 신앙은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머니였다. 아버지에게 언제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그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였다. 이웃과 친척을 항상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대하였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회심한 후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녀의 삶을 지배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 그랜드캐년이 노아홍수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이유 (2)



박창성 박사  
세계창조선교회 회장

## (2) 그랜드캐년이 형성되기 이전에 대규모의 침식이 있었다

그랜드캐년 자체를 만든 침식작용도 엄청나게 큰 규모이지만, 그랜드캐년 지역에서 일어난 침식은 그것만이 아니다. 현재의 그랜드캐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층위로 최대 3,000m 두께의 지층들이 쌓여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부분 침식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침식이 일어난 콜로라도 고원(면적 50만 km2)은 톱산맥과 주위의 고지대로 둘러싸여진 곳으로, 대한민국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광활한 땅이다. 이곳에서 침식되어 없어진 물질의 양(부피 40만km3)은 그랜드캐년 자체에서 침식된 양의 100배나 된다.

콜로라도 고원에는 대규모의 침식을 견디고 남은 일부 지층들이 계단, 기동 또는 뿔뿔이 평평한 탁자모양으로 현재 남아있어서, 과거에 넓게 쌓여 있었던 지층들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 많은 양의 물질들은 무엇에 의해서 침

식되었을까? 과연 오랜 세월 동안 빗물과 하천이 흐르면 그렇게 거대하고 평탄한 지형을 만들며 침식할 수 있을까? 빗물, 하천은 물론이고 바람이나 빙하, 어느 것으로도 그렇게 큰 규모의 침식을 평탄하게 일으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넘쳐서 대륙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 퇴적물이 쌓인 후, 다시 바다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침식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는 홍수가 아니라, 해일과 같이 대륙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대홍수라야 그 정도 규모의 침식을 일으키며, 평탄한 표면을(planation surface)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랜드캐년 지역에서 일어난 침식작용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륙 전체를 덮은 홍수물이 바다로 후퇴하면서, 콜롬비아 고원에 두껍게 쌓여있던 지층들이 대규모로 침식당하여,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sheeted flood - 그랜드캐년 위로 쌓여있던 콜롬비아 고원의 지층을 침식).

■둘째, 홍수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높은 육지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콜로라도 고원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홍수 물(inland sea)이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낮은 곳을 찾아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광대한 계곡, 그랜드캐년을 만들었다(channelized flood-그랜드캐년 Section A 침식).

■셋째, 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빠져나간 후, 그랜드캐년 안에 빗물이 모여 작은 콜로라도 강을 이루고, 평탄한 지표면을 천천히 구불구불 흘러가는 사행천이 되어 작은 계곡을 만들었다(meandering underfit river-그랜드캐년 Section B 침식).

Figure 5. 그랜드캐년을 서쪽 하늘에서 비스듬히 내려다 본 사진. 광대한 그랜드캐년 계곡 안에 실처럼 가느다란 콜로라도 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사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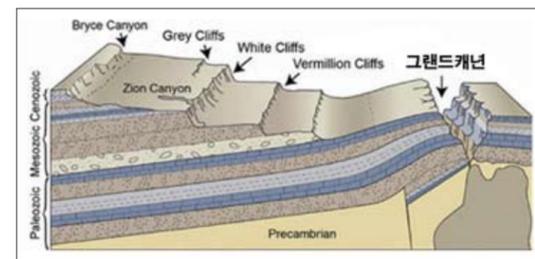


Figure 3. 그랜드캐년 일대의 지층을 남북 방향으로 자른 단면도(왼쪽)와 콜로라도 고원의 지도(오른쪽). 현재의 그랜드캐년에서 볼 수 있는 지층 위로 수천 미터 두껍게 쌓여있던 지층들이 침식당해 없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침식이 일어난 콜로라도 고원(지도의 노란색 부분)은 그랜드캐년을 포함한 콜로라도 강의 유역으로서, 주위의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한민국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광활하고 평탄한 땅이다.



Figure 4. 그랜드캐년 부근에 있는 Cedar Mountain(왼쪽)과 Monument Valley(오른쪽). 그랜드캐년을 비롯한 콜로라도 고원 일대에 두껍게 쌓여져 있었던 지층들이 평탄하게 침식당하고, 일부 지층만 남겨진 모습을 볼 수 있다.

(meander)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있다. 사행천은 평지를 천천히 흘러갈 때 나타나는 하천의 형태이다. 콜로라도 강은 대홍수가 끝나고 이미 넓은 폭으로 형성된 그랜드캐년 안에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가면서 사행천을 이루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거에 바닷물이 대륙을 휩쓸는 전 지구적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랜드캐년의 전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홍수가

바로 성경에 역사적 사실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도 풍화작용과 빗물, 콜로라도 강에 의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랜드캐년 형성에 있어서 극히 부본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 (참고) 노아의 홍수와 화산 활동, 강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는 땅이 갈라지는 격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서 바닷물이 뜨거워지게 되고, 수증기를 대기중으로 계속 공급하여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로 인해, 콜로라도 강이 이미 넓게 형성된 그랜드캐년을 흐르면서 더욱 깊이 침식시켜, 수직에 가까운 계곡(Section B)을 만들었을 것이다.

park@wcmweb.org

### 리더십 코멘터리 (29)

####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Turning Point

10년을 내다보고 리더에 집중하라

라이프지가 지난 1천년간 발생한 100대 사건을 선정해 리스트를 발표했다. 1위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 발명, 2위와 3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리스트 가운데는 코카콜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나 제이선(Cocacolonization, 콜라를 통한 세계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청량음료가 아니라 미국 문화의 상징이자 이미지이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영어 단어가 '코크(Coke, 코카콜라의 별칭),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는 유엔회원국 수보다 더 많은 195개국에서 생산되며, 세계 청량음료시장의 45%를 차지한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되는 데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G 캔들러는 알코올을 중독자였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력이 약해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그는 벼락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은 것이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를 절저히 헌금했으며 그 이후 코카콜라는 장관의 발전을 거듭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전환점을 통하여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 기업과 교회에서는 10년을 내다보고 리더에 집중해야 한다.

생각과 방식의 전환점이 중요하다

모든 전환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변해야 말도 변하고 행동도, 습관도, 삶도 변한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스마르크와 친구가 사냥을 갔는데 친구가 그만 늑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비스마르크는 사냥총을 친구의 머리를 향해 겨누었다. 친구는 놀라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때 비스마르크는 총을 친구에게 잡을 수 있도록 내밀며 "내 총구가 너의 머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겨누었다"고 말했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기업과 교회의 리더여, 지금 당신의 안된다라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별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버려라.

자산규모가 1천5백억 달러, 상표가치는 4백억 달러로 세계 최강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 코카콜라라는 99% 이상이 설탕물이며, 나머지 1% 미만이 코카콜라 원액 7X이다. 7X의 성분은 극비 중 극비로 되어 있고 7X는 미국 내 16개 공장에서 서만 생산하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카콜라 공장들은 이들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설탕물과 섞어 병에 담은 보틀러(Bottler) 역할만 한다. 아주 작은 1%가 99%를 지배한 것이다. 기업과 교회의 리더여, 잘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못한 다수를 지배하는 원리를 깨달으라.

변화에 둔감한 강요형 리더는 실패 '순위'

성공하는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차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실패하는 리더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보자.

▲'시키는 대로 해라'식의 리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나 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반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동조하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 구성원들의 업무 스타일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도록 강요한다. 당신은 능력 받은 중이라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리더는 아닌지?

▲변화에 둔감한 리더: 기존의 업무 체계를 고집할 뿐 구성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새로운 시도를 꺼리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보다 현상 유지에 더 중점을 둔다. 당신은 교회 전통만을 고집하는 리더는 아닌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리더: 구성원들이 잠시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하고 실적을 위해 과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 상황에 따라 업무부담을 준다. 단기간의 업무 장애를 우려해 구성원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가 이루어야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에 시도하려는 리더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요를 알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삶의 패턴이나 조직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이나 문화가 고착화되면, 그것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인데, 사람들에게 변화가 왜 필요한가를 알려줌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변화가 주는 유익을 강조하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변화 때문에 자신들이 잃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손익계산을 하다보면, 자칫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변화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리라: 조직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보일

### 생각과 방식의 전환점이 중요... 변화의 필요 알리고 유익을 강조하라 모든 사람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어... 변화의 단계 제시하고 시작해야

들의 직무 순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해 구성원들의 개인 생활을 배려하지 않는다. 당신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교회 봉사를 강요하는 리더는 아닌지?

▲등잔 밑이 어두운 리더: 결정이나 지시를 내려놓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평소 현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하는 측근의 보고는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다.

가을은 변화를 주도할 터닝 포인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조직 안에서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며, 반대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세력도 16%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조직에서 변화를 시도할 경우,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장악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68%의 침묵하는 다수들이 변화를 추구할 경우이다. 따라서 리더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갖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의 단계를 제시하라: 변화의 단계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뤄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여금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변화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만든다.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이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문제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이 필요하다.

리더여, 이 가을은 당신의 조직에 변화가 필요한 터닝 포인트이다. 이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으라.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시작하라.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 탐욕의 희생물 사울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식의 왕을 구했어도 일단 허락하시었기에 저들이 구하는 왕제도가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외모는 멀쩡한데 속은 빈 강철 같은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울을 첫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이 없는 무명인 사울이 승리도록 사무엘이 겐에서 도와 힘을 주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초심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저는 얼마나 귀한 선왕이 되고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렸겠으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왕으로 계속 행보를 유지했다면 평생이 복으로 넘쳤겠는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신 그 자리를 유지함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잊고 위급한 상황만을 모면해 보려는 공여자책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머리 속엔 변제의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승리의 풀라가 굴러 나올 줄 아는 철저한 상상 승배기복 신앙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제 드렸으니 고기잡주시고 승리를 내놓으셔야죠." 사울의 마음이니 사무엘을 기다릴 시간도, 필요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반제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여 여깁니다. 왕 자리가 천지가 아닌 자신의 일이 된 사울에게 사무엘의 책망만 하고 황하니 가벼인 행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일로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변질되면 외적으로 보이는 충성은 갈아 보여도... 하나님 방식이 아닌 최대로 내 방식으로 성취하려하기에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십니다. 제 뜻대로 일이 풀려줄 리가 없으니, 너무도 죽을 맛입니다. 점점 왕된 자기 권위를 세우는데 신경이 몰려 있고 백성의 형편 따위는 한중에도 애타지니 판단이 흐려집니다.

권세라는 것이 양심도 자존심도 팔아먹을 만큼 그토록 매력에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의 왕 자리를 지키기에 전진공금 수단 방법을 다하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왕위도 길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시며 기회를 줄수록 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일만 열심히 내는 사울입니다. 권력의 중독에 빠져 목숨 걸고 집착하는데 하나님이 당연 관심 밖입니다. 정말로 미련함을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벳력을 친 노두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벳력을 어느 누구도 진멸하라 하시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하라 사무엘에게 싶은 소리 들으니 열은 제 사용으로 남겠다고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에게 뉘비권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왕의 자리가 다른 이에게 가겠다고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움직인 왕위에 돌을 던집니다. 그제서야 백성이 두려워 그랬다고 이번에는 백성 탓으로 돌려되며 빌며 매달립니다.

어디 사울뿐이요, 우리 모두 내면에 내재하는 사울이 있기에 마음이 끝끝 쓸쓸합니다. 앞장 선 리더십이 사울같이 파워 중독이면 그 밑에 있는 이들의 삶이 고달프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초심을 잃고 사울과 같이 내 사역으로 변경해 성도들을 자신의 존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함에 무감각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진정공의와 거룩함으로 왕으로 모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 다윗을 많이 일으켜 주시길 늘물려 기도합니다.

heenee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b>담임목사: 김영길</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영아관(영유아, 30C, 영영드림센터)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b>담임목사: 진유철</b>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모임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헌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b>담임목사: 김문수</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 F: (213)388-8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b>담임목사: 민경엽</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명목예배: 오전 5:30 명목예배: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8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두드림교회</b> <b>담임목사: 김현민</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창간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b>남가주사랑의교회</b> <b>담임목사: 노창수</b>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EM 창간예배: 오후 2:00 주일 학교: 오후 5:00(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b>담임목사: 권영국</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등문교회</b> <b>담임목사: 김광삼</b>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토) 금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연합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agpc.com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b>대표: 전영자 목사</b> "세계속에 흠이 있는 우리의 통곡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환상 경음), Tel: (213)210-8980 1213 Gabriel Garcia Sanch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b>담임목사: 지용덕</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대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02 Tel: (213)380-9377, 9079	<b>미주평안교회</b> <b>담임목사: 임승진</b>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헌신) 4부: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후 1: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www.mpl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b>담임목사: 이정현</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렐한인교회</b> <b>담임목사: 김한요</b>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성인연합예배: 오후 11:00(헌신)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b>담임목사: 김상덕</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82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b>담임목사: 오세훈</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b>담임목사: 정상호</b>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b>담임목사: 박경호</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학교: 오전 5: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6:00(토) 수요일학교: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b>담임목사: 엄규서</b>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헌신)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후 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N,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b>담임목사: 한기홍</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265월 24시간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움교회</b> <b>담임목사: 박성규</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헌신)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l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b>담임목사: 신승훈</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j.org	<b>중은마을교회</b> <b>담임목사: 신원규</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학교: 오전 11:45 새벽 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ch.org / www.1680.com Tel: (714)648-9259 Fax: (714)648-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b>담임목사: 이종용</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org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b>담임목사: 김바울</b>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36-4400 Fax: (718)93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



목회서신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승훈 목사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아름다운 세상에 대하여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과 싸움이 없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잘 승진하여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 들어 적적 잘 성장해주고 하는 등 정말 기적 같은 것 없이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아오지 않나 싶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치는 환경 즉 고난의 상황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할수만 있는

대로 그 거치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축소하고 싶을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입장에서 보면 당신을 향해 태클하며 들어오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 원망어린 타령 외에는 달리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일까?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이 세상을 빠져 나갈 시간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날이 되면 크든 작든 축하 파티의 시간을 가지지만 사

실은 이 세상을 빠져 나갈 시간이 한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싸인이다. 따라서 세상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소가 결코 아니다. 세상이라는 본질 자체가 무질서와 혼란과 거치는 상황의 덩어리인 셈이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는 아름다움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대답은 “없지만 있다”이다. 없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 안에서는 결코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는 가능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거치는 상황, 고난의 상황에 대해 장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보편적인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마치 진통제 하나 정도의 말로 위로하려고 할 것이다. “힘내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이 말처럼 금세 호전되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부닥친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라.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라.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이 보아야 할 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될 “장래의 영광”이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치는 상황을 직면해가면 반드시 주의 신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게 될 장래의 영광을 보

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세상의 온갖 쓴맛을 다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다. 세상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목마름이 있다면 평생을 달려가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목마르거든 즉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을 찾기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다. 군대 첫 휴가 나가기 직전의 병사들의 그 기대와 기쁨과 들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온갖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휴가를 앞둔 병사들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이런 병사는 현재의 고된 훈련을 넘어서 찾아오게 될 달콤한 휴가의 시간을 바라본다. 혹시 현재의 고난이 악화되고 축소되기만 목말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원망 가운데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쓰디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망의 늪에서 속히 탈출해 나오라. 먼저 현재의 고난의 상황을 아파도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 하고 고난을 넘어서 장래에 찾아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호흡 하나 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프로그램이 주최한 목회자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노창수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주최 목회자 세미나 강사, 강준민 노창수 호성기 목사, 홍은선 선교사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아시안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교회),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 그리고 홍은선 선교사(윌리프린교회)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선교와 민족개혁신’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 강준민 목사는 모세와 출애굽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민족개혁신에 대해 강의했다. ‘이웃선교’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맡은 노창수 목사는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수박사 보내기’와 노인아파트 방문 등의 사역을 소개하며 이웃선교를 설명했다. ‘선교 품은 교회’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맡은 홍은선 선교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끝은 교회에

적이나라 모든 족속을 제자삼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며 “선교적 입장에서 본 교회는 교회가 목적이 아닌 증인이 되는 도구이다. 선교는 교회의 축소판이며 건강한 교회가 선교를 건강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제4물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호성기 목사는 PGM사역을 소개하며 강의를 이끌었다. (박준호 기자)



KPCA 서노회 여성교회 연합회 주최 제40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31회 성가의 밤이 30일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제31회 성가의 밤에서 찬양하고 있는 새한교회 찬양대 모습

제40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31회 성가의 밤 KPCA 서노회 여성교회연합회 주최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KPCA) 노회장 김신 목사) 여성교회 연합회(회장 황명희 권사) 주최 제40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31회 성가의 밤이 30일 오후 4시30분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노회장 김신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교회성장과 세계선교를 이끌어왔으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교회와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왔다”며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서노회 여성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는 에베에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서른한번째 성가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복하며 이 자리가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이규숙 권사(새한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제31회 성가의 밤은 새한교회(지휘 이명환), 성공교회(지휘 변

윤석), 주님세운교회(지휘 서은재), 갈보리믿음교회(지휘 이재형), 남가주한소망교회(지휘 지미경), 나성영락교회(지휘 김재각) 등 7교회 찬양대가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나성영락교회 헌성중장단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Lee's Family가 찬조 출연했다. 성가의 밤이 열리기전에 가진 제40주년 기념예배는 나성영락교회 지명현 목사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으며 황이영 권사(나성영락교회)의 인도로 시작, 목경순 권사(갈보리믿음교회)가 성경봉독을, 김신 목사(주향교회)가 ‘할렐루야’(시 150: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황명희 권사가 직전회장인 김진연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명현 목사(남가주한소망교회)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노회장들이 칸쿤에서 연석회를 가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칸쿤에서 노회장 연석회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산하 노회장들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첫날 저녁 경건회를 마치고 늦은 밤까지 회의를 했으며 다음날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서기 허상희 목사 인도로 정철 목사(남가주노회)의 기도 후 총회장 고택원 목사(“예수님의 마

음을 분반는 자”, 빌2:7)가 설교했으며, 통성기도 후 유재일 부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관광과 친교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경건회 후에는 연석회의의 강령회와 건의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노회장 연석회의는 사모 동반 총 48명이 참석했다. (기사제공: KAPC)

목회자 위한 재정 세미나 연다 11일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강사 문선영 재정전문가

목회자를 위한 재정 세미나가 마련된다. 오는 11일(금) 오전 10시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황승일 목사)에서 열리는 ‘목회자를 위한 재정 세미나’는 금융 마케팅 회사인 신시스



주최로 열리게 된다. 세미나 강사는 문선영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목회자를 위한 재정세미나는 일부 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압박으로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정안정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문선영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은 “많은 목회자들이 저축 및 은퇴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만 정작 재정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정상식과 저축 및 가계부채,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세미나는 한인 목회자(목사,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열리지만 교인들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주최 측에서 알려졌다. 세미나 등록비는 없으며 다과가 준비된다. ▲문의: 문선영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626)827-9599 (박준호 기자)



목사장으로 부부 찬양단 스태프들이 제9회 정기연주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9회 정기연주회 13일(주) 오후 6시 월서연합감리교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박재웅 목사, 지휘 데이빗 목사) 제9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3일(주) 오후 6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월31일 오전 11시 로텍스호텔에서 열렸다. 단장 박재웅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갖게 됐다. 이번 연주회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깨어라 면동이 튼다’, ‘주의 동산’ 등 10곡이 불려지게 된다. 또한 마지막 곡은 관객들과 함께 추수감사송을 부르게 된다. 데이빗 지휘자는 “합창은 하모니가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들의 설교스타일과 목회스타일이 차이가 있기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목사장로부부찬양단에 오시는 목회자들은 서로 양보하는 모습 속에 은혜가 넘쳐나길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 나오게 되는 화음은 연주회에 찾아오시는 관객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 나성영락교회 소망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56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찬양단은 50~60대가 주축이다. 박 단장은 “찬양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주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부부간 갈등이 있게 될 때가 있는데 연습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는 걸 보게 된다”며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찬양단이기 때문에 연습회까지 함께 오게 된다. 찬양을 통해 그리고 오고가는 차원에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 부부간의 사랑도 더 돈독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조이폴 남성 선교총단, 기독교여성합창단, KAMA Boys & Girls Choir, 소프라노 줄리아니 특별출연해 정기연주회를 빛내게 된다. ▲문의: (213)550-8778/총무 백선용 목사 (박준호 기자)



제1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발달장애인과 봉사자로 구성...하나님께 영광 제1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황

제1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박원주 전도사는 “발달장애인과 봉사자로 모인 저희 오케스트라 첫 공연을 마쳤다. 8개월간 준비해 최선을 다해 공연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최경은 교수의 지휘에 맞춰 ‘How Great Thou Art’, ‘Ave Maria’,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Amazing Grace’ 등

을 연주했다. 또한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챔버 앙상블로 나누어 연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바리톤 윤기훈이 피아니스트 최현정, 첼리스트 최경은 교수가 특별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1부 연주회에 이어열린 2부 순서에는 헤븐스밴드 공연과 선물 추첨 등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12월 20일경 한인타운내 양로병원을 방문해 공연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5회 삼삼오오 찬양예배 및 8090 찬양팀 가을콘서트

제5회 삼삼오오 찬양예배 및 8090 찬양팀 가을콘서트가 30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하나크리스천센터(담임 이용욱 목사)에서 열렸다. LA 지역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며 교회에 나가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에게 초청의 기회로 삼는 취지로 열린 삼삼오오 찬양예배는 허번 목사(새로위치는 교회)가 환영과 시작기도, 8090찬양팀의 찬양인도가 있었으며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가 ‘포도나무와 가지’(요15: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8090 찬양팀 가을콘서트는 마원철 목사(팜스프링스 ANC 온누리교회)와 8090찬양팀이 찬양으로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의 마침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삼삼오오 찬양예배) (사진 11면)

# 동부교계 게시판



### ‘요한 웨슬리 유적지 집중스터디 투어’

미연합감리교 뉴욕연회코코스(회장 조건삼 목사)와 미주웨슬리 부흥전도단(단장 김영식 목사)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동북부 한인 연합감리교연합회(회장 이응연 목사)가 후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요한 웨슬리 유적지 집중스터디 투어’가 내년 4월 17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투어 장소는 영국. 참가비용은 2500달러(항공료, 호텔 일체포함), 참가 예상인원 30명. 11월말까지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를 메일로 받게 되며, 예약금 1천달러를 12월 10일까지 보내야 한다. 참가자들은 출발 한달 전 예비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enochjwchang@gmail.com

▲문의: (631)432-0461, (860)794-1671 장재웅 준비위원장

### 스마트폰 초급반 중급반 개강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60기)과 중급반(61기)가 뉴욕기독교방송국 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 초급반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강의내용은 전화, 메시지, 일정, 알람, 타이머, 사진, 영상, 카톡 등. 중급반은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강의 내용은 다양한 카톡 중급 기능 활용법, 인터넷, 주소, 앱 다운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 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문의: (718)414-4848

### 뉴욕어린이양교회 추계 부흥성회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박운선 목사) 추계 부흥성회가 11월 18일(금)부터 20일(주)까지 열린다. “Call in” 주제로 열리는 집회 강사는 흥민기 목사(전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탕크미니스트리 대표, 브리지엔지니어링사역원장), 금. 토 저녁 8시30분, 주일 오전11시와 오후 2시에 집회가 있다.

▲문의: (718)899-8309

### 유진웅 교수 색소폰 찬양음반 발매 기념 연주회

뉴욕칼빈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유진웅 교수 색소폰 찬양음반 발매 기념 연주회가 11월 13일(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채한성, 유태웅 목사, 김영환 테너가 우정 출연한다.

▲문의: (718)539-7929 뉴욕우드윈즈비즈니스쿨

### 제 2회 음향 세미나

Sound Park NY(대표 박대중)이 주최하는 보스턴 지역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 2회 음향 세미나가 11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스턴은누리교회(담임 이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주 강사는 이충제씨로 버클리음대에서 작곡과 음향을 공부했으며, 은누리교회 Grace Chapel에서 음향을 담당한 음향 엔지니어. “알기 쉬운 교회 음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예배에서 음향의 중요성, 기본 음향이론, 음향의 실제 활용방법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회비는 10달러(점심 포함).

▲문의: www.soundparkny.com, jaylee@soundparkny.com



뉴욕교협 제42회 총회를 마치고 총대들이 기념촬영 했다

## 부회장후보 김전 목사 3일전 사퇴

### 뉴욕교협 제42회 총회 난항 예상했으나 무사히 마쳐

<1면에서 계속>  
이사회 보고는 이상호 이사장이, 청소년센터 보고는 황영송 목사가 각각 보고했다. 신임회원으로는 예수교회 김현태 목사가 가입했다. 김현태 목사는 독립교단으로 1988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회칙 수정은 제11장 선거 및 자격 제25조(자격)에서 12항을 신설했다.

12항은 ‘목사회 현역 회장, 부회장은 임후보할 수 없다’로 뉴욕목사회 회장임기가 교협보다 2개월 정

도 겹치기 때문에 4차 임시행위위원회에서 이 항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3/2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침체돼 있는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수정 회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회칙은 제 8장 이사회 19조 1항에 덧붙여 각 회원 교회가 파송한 본 회 총회의 평신도 대표 1인은 자동이사자가 되도록 했다. 또한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3인 등 4명이 교협 총회의 자동총대가 되도록 개정했다.

이러한 임원선거에서는 부회장 김흥석 목사가 회장으로 올려졌으

위해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전 목사의 명예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신앙양심에 따라 사퇴이유를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만호 후보를 놓고 투표한 결과 총 투표수 161표 중 찬성 92, 반대 67, 무효 2표로 과반수를 넘어 당선됐다.

감사는 이미 후보가 된 김영철 목사와 30분 늦어 후보선정이 안됐던 김기호 목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주열 장로가 지난회기와 동일하게 유일했다.

김흥석 목사가 바톤을 이어받은 회의에서 신안건으로 △교협주소록 정리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체납회비는 내지 않는다 △뉴욕교협이 세기총, 미기총의 회원이 됨을 인준해야 한다 등 3개항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김흥석 목사의 폐회기도 후 총회를 모두 마쳤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가을특별성회 첫날 저녁에 한규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사랑의 풍성함으로 의의 열매 맺으라”

### 퀸즈장로교회 가을특별성회, 강사 한규삼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을특별성회가 28일 저녁과 29일 새벽에 걸쳐 한규삼 목사(뉴저지 초대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매 가을마다 부흥성회를 열어나온 퀸즈장로교회는 이번에는 특별히 가까운 뉴저지에서 묵회하는 강사를 초청했다.

한규삼 목사는 금요일 저녁 “바울의 기도”(빌1:9-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람이 점점 풍성해지길 기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된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천국의 속성은 풍성”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기도제목은 사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고 유일한 분이라는 깨닫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장로피택을 앞둔 퀸즈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장로 피택의 기준도 이 지식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제물인데, 화목제의 조건은 그날로 다 먹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웃과 함께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며 “사랑이 풍성해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목사는 “지식이 넘치는 이 시대에 그 지식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며, 이 시대 교회는 진실로 승부해야 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알면 쉬이지 않으며 쉬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규삼 목사는 29일 새벽예배에서는 “위로의 사람들”(담후1:16-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성회가 끝난 주일인 30일 주일 장로피택 후보자들을 뽑았으며 11월 첫 주일에 배 후 최종 피택자를 선출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결산의 때를 준비하라” ..후원자의 밤 11월27일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10월 정기예배가 지난 26일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합심기도, 축도 김흥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라”(고전4:1-5)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본문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며 “마지막 결산 때의 판단 기준은 내 자신을 위한 기준이거나 타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님의 의도와 동기는 칭찬하시려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은 충성과 성실성이다. 2016년 한해에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 일에 충성을 요구받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모든 회원들이 이 일에 충성함으로 칭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는 회장 전희수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2016년도 남은 행사는 △후원자의 밤: 11월 27일, 장소 미정 △‘오 병이어’ 원고 마감: 11월 10일, 이어서 퀸캐더린 목사가 회계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는 한재홍 목사의 폐회기도 후 김민한 장로가 오찬기도를 인도함으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일행이 뉴욕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이만호 뉴욕지부 부회장, 왼쪽이 송일현 목사.

##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일행 뉴욕방문

지난 1일 정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 일행들이 뉴욕을 방문. 플래시 산수갑산2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뉴욕방문은 2일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 디옥교회 담임)의 뉴욕지부 회장취임식 참석차 온 것.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기부 제44대 대표회장으로, 작년 11월까지 한기부 증경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제4대 이사장으로 추진 받은 송일현 목사는 “환영에 감사한다”며 “한기부는 48대가 오

는 동안 흠여짐 없이 갈라짐 없이 유일하게 달려온 단체다. 미주에서 6대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속했다. 앞으로도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전개되고 확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부는 지난 27일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최영식 목사(큰사랑교회)를 추대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다.

<유원정 기자>

##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회, 강사 장영출 목사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장영출 목사를 강사로 가을 부흥회를 열었다.

나성근 목사는 “오랫동안 기도 준비하던 금년 후기 부흥회인 가을 부흥회가 개최돼 큰 은혜와 새로운 축복으로 새 역사를 확실히 기대했다”며 “장 목사는 은퇴 후 더욱 신령한 복음의 핵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리조로 강해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고 있다. 이번 부흥회에서도 끝맛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실천해 하며 삶에 옮기는 다이내믹한 현장 삶에

변화적인 말씀을 실천해 참 승리의 삶을 영위케 하는 역동적 크리스천의 삶으로 성공하며 큰 영향력을 끼쳐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큰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우뚝 세움 받게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다.

강사 장영출 목사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장신대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사우스웨스턴 침신대학원과 서던캘리포니아 신대원을 졸업한 후 철학박사, 신학박사를 취득했으며 공군 군종감으로 군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 후 전원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제

### 뉴욕갯세마네교회, 이용결 목사 초청 추계부흥성회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이진하고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추계부흥성회를 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강사는 이용결 목사(필라델피아 선교사)가 초청됐다. 이용결 목사는 지난 16일 필라델피아로 목회 35년을 마감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후 처음으로 집회를 인도했다.

첫날 집회에는 김흥석 목사(뉴욕 늘기쁨교회)가 기도를 했으며, 방시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 목사)가 축도했다.

신학교 시절 이지용 목사를 가르쳤던 은사 이용결 목사는 풍부한 목회경험을 통한 예화를 통해 말씀 적용을 쉽게 설명했다.

이용결 목사는 첫날 저녁집회에서 “신앙인의 불신앙”(삼상13:8-12)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대신 변명하는 것 등 3가지 불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진실로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다.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교들도 많은데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실로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3가지 불신앙은 첫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둘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처럼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현실적 예대로 드리는 것. 셋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상황 윤리를 들어 변명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결 목사는 LA로 이주해 영생교회의 지원 아래 선교지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게 되며, 40년 목회 노후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세미나도 가질 계획이다.

<기사제공: 갯세마네교회>



갯세마네교회 첫날 부흥회를 마치고 순서말은 목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이지용 담임목사, 방시각 목사, 이용결 목사, 김흥석 목사.

<4면에서 계속>

그러 먹는 일과 보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에도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으로 눈과 귀가 막히고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만은 자기만 궁중잔치에 초대해 주었다는 착각에 빠져 궁궐 파티장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높은 교수대위에서 모르르게 대신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올라가야 합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입니다.

주님께신 곳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려서 교만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면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무엇이 많은 하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의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뒤를 따라 교만의 날개를 달고 오르려고 합니다.

오직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날개를 달고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ng78us@Yahoo.com

하나님의 달아주시 날개를 달고

# 20여 개국 300여 어린이 참석 어린이전도협 주최 다민족 어린이 연합집회 성황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한 다민족 어린이 연합 집회가 또감사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여병현 목사는 “이번 집회에 20여 개국에서 300여명의 다민족 어린이들이 참석했다”고 언급한 후 “이번 전도부흥회 통해 먼저 예수님 모르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 목사는 “또한 구원받은 아이들은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일꾼으로 자라게 되길 바라며, 어른들이 어린이

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욱 목사의 환영인사와 기도로 시작된 다민족 어린이 연합집회는 존 여 전도사(LA사랑의교회)가 레크리에이션을 겸한 아이스브레이크를 진행했으며, 인형극팀의 인형극 공연, 린다문 전도사와 다니엘 엘리엇 선생이 찬양과 예배를 인도했고, 칼로스정 전도사가 마술을, 주인석 목사가 마법기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주최 다민족 어린이 연합집회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침반교회 주최 이웃초청 성극 '고백' 공연이 10월30일(주일) 오후 3시와 6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상연됐다.

## “삶속에 주님이 구주되심을 고백” 나침반교회, 이웃초청 성극 '고백' 공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주최 이웃초청 성극 '고백'(연출: 공미연, 기획: 전준홍, 김명균) 공연이 30일 오후 3시와 6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상연됐다.

30일 오후 6시30분에 열린 두 번째 공연이 열리기전 인사말을 전한 민경엽 목사는 “주일저녁 시간을 내어 찾아오신 관객여러분께 감사

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공연은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각색해 무대에 올렸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주됨을 고백한 것처럼 공연을 관람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삶속에 주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아이엠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말과 삶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 아이엠교회 설립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 설립 7주년 기념예배 및 집사임직식이 30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김규호 전도사의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로 시작된 예배는 최원택 집사가 기도했으며 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어서 정종원 목사가 '나의 자랑 나의 교회'(살전1:2-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종원 목사는 “세상은 점점 혼란 불신 상태로 얼룩져있으며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정신에 혼미해져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교회 본래모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인생방향 끝내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끝내려면 선한싸움을 하는 교회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소망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엠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되는 교회, 말과 삶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사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박영현, 우신영, 조재주.

(박준호 기자)

##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초청 LA라이브 콘서트 원하트 미니스트리 주최, 원하트밴드 협연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한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초청 LA 라이브 콘서트가 26일 오후 7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김브라이언 형제는 “콘서트에 왔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며 “오늘 오신 분들과 웃고 즐기고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됐다. 유익한 시간이 돼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찬조 출연한 김브라이언 형제의 절친이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있는 이실라 형제는 “LA에서 첫 번째 콘서트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찬양해야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김브라이언 형제와 원하트밴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수의 관객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관객들의 표정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공유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관객 중에는 김브라이언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초청 LA라이브 콘서트가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캠코랄 11주년 정기연주회가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캠코랄 11주년 정기연주회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위한 사랑의 음악회로

캠코랄(지휘 이수정 집사) 11주년 정기연주회가 30일 오후 7시 뉴

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문정 목사(시온성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우리에게 평화를', '마리아여 아셨나요', '주는 나의 피난처' 등 성가곡과 '여행을 떠나요' 등 대중가요, 그리고 '내기도 내눈물', '바닷길' 등 CCM곡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불렀다.

이날 래싱턴중학교 합창단과 딜리버러스 오케스트라가 찬조 출연했으며, CCM싱어 허훈과 뮤지컬배우이자 CCM싱어 이진미 집사가 곡 중 솔로부분을 맡았다.

이날 공연순서 중에 영감 거주하원의원이 캠코랄 10년 근속 멤버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박상목 목사(가주주님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APU한인동문회 주최 이집트 콥틱교회와의 만남

APU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하는 이집트 콥틱교회와의 만남 행사가 크레센트 침례교회(Crescent Baptist Church)에서 7일(월) 오후 6시에 열린다. 교회주소는 622 N. Gilbert St, Anaheim, CA 92801 ▲문의: (818)331-5478최장식 목사, (310)988-0099김사라 전도사

### 미주장신대학교 2016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2016년 후원의 밤 행사가 7일(월) 오후 6시30분에 본교 예배실에서 열린다. ▲문의: (562)926-1023

###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합창제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 권사)가 주최하는 합창제가 6일(주) 저녁 6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10)650-4842, (818)571-9348

### LA 남성선교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LA 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호, 지휘 원영진)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일(주) 저녁 7시 워셔연합침례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는 베누 트리오와 소프라노 최정원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626)825-9110, (213)446-0904



찬양사역자 박철순 간사 worship in LA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 “옥합을 깨뜨린 마음으로 드리라” 박철순 간사와 함께하는 Worship in LA

찬양사역자 박철순 간사(전 어노 인팅 대표)와 함께하는 Worship in LA 집회가 27일 오후 7시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박철순 간사는 “진정한 예배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현대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어린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예수 사랑하심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을 불렀다. 1시간동안 공연을 가진 후 2부

순서로 박철순 간사가 강사로 나서 찬양세미나를 가졌다.

박 간사는 “찬양인도자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말씀을 묵상하듯 가사를 묵상해야 한다. 가사에 대한 묵상이 내 고백이 돼야 하며 그럴 때 청중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예배는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다.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만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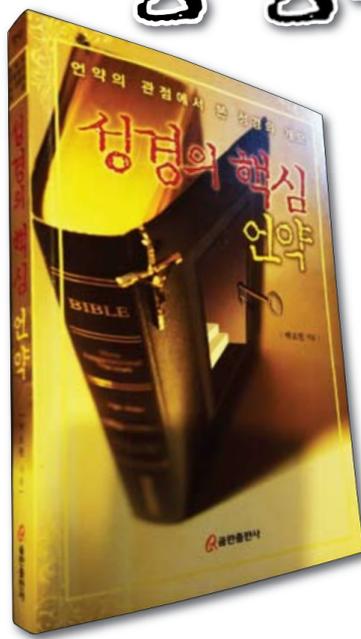
(박준호 기자)



삼삼오오찬양예배가 하나크리스천센터에서 열렸다

## 언약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개요

# 성경의 핵심 언약



\*\*\*이 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 첫째: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도표로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언약의 통일성을 통해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된다.
- 셋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감동된다.
- 넷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나라의 복된 삶이 열린다



### 저자\_백 보 현

Yui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M.Div)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D)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M)  
Cohen University 기독교변증학, 기독교교사사 교수  
남가주 호스피스 전도회 설립  
저서- 지성과 신앙의 대화 (2001 콜란출판사)  
미주인민 100주년 기념 디아스포라의 종언을 향하여(2003.콜란출판사)

권당 \$18 (무료우송) 10권 이상 \$13 (무료우송)  
주문처 (714)200-3430  
Pay to order of: Simon Paek  
2523 Avocado st, Fullerton CA. 92835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정리하여 이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나감을 밝힘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증거합니다.  
| OC 교회협의회 중경회장,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의 추천사 중에서 |

## 최태민은 사이비 ‘영세계’ 교주... ‘목사’ 아닌 ‘척사’ 자처

### 국민일보, 1973년 대전지역 집회 홍보한 신문광고 입수

최순실씨의 부친 최태민(1994년 사망)씨가 사이비 혼합종교의 교주였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다. 1970년대 초 최씨는 이른바 ‘영세계(靈世界) 교리’를 전하는 ‘척사(勅使)’로 활동했으며 이를 신문광고를 통해 알렸다. 국민일보는 26일 관련 문건을 월간 현대종교로부터 입수했다.

척사 최태민이 말하는 영세계 교리란 불교에서의 깨침과 기독교에서의 성령강림, 천도교에서의 인내천을 조화시킨 영혼합일법이었다. 척사의 사전적 의미가 ‘입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점에서 최씨는 ‘영세계 교리’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자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1973년 5월 13일자 대전일보 4면에 소개된 ‘영세계(靈世界)에서 알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299자(숫자 포함)짜리 광고다. 광고는 “영세계 주인이신 조물주께서 보내신 척사님이 이 고장에 오시어 수천년간 이루지 못하며 바라고 바라던 불교에서의 깨침과 기독교에서의 성령강림, 천도교에서의 인내천 이 모두를 조물주께서 주신 조화로서 즉각 실현시킨다 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와 척사님의 조화를 직접 보시라 합니다”라고 돼 있다. 광고는 영세계 교리를 소개하기 위해 대전에서 열리는 집회의 안내문으로, 직사각형 쪽광고 형태를 띠고 있다. 직사란 표현은 세 차례 등장한다.

광고문은 이어 날짜와 시간, 장소를 공지했다. 집회 일시는 광고 당일인 5월 13일 오후 4시였으며, 장소는 대전시 대흥동 현대대식당이였다. 집회 참가 대상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를 들고 “영세계 법칙을 전수받아 만민에게 참된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광고에는 또 “난치의 병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께 현대의학으로 해결치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난치병자와 모든 재난에서 고민하시는 분은 즉시 오시어 상의하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광고 말미엔 척사가 거처하던 장소를 명기했다. ‘척사님의 임시숙

소’는 ‘대전시 대사동 케이블카 200m 지점 감나무 집’이었다. 임시 거처에 머물며 상담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광고 문구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최태민 수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 수사보고서에서 최태민은 서울과 대전 일대에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등 사이비 종교 행각을 벌였고,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했다는 교리를 내세웠다. 이름도 ‘

## 최태민씨, 박 대통령·교회 앞세워 이권 쟁겼다

최순실씨의 부친 최태민씨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를 앞세워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 불교 천도교 사상을 혼합한 영세계(靈世界) 교리를 설교했던 사이비 교주에 속았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는 영어를 앞세우고 ‘구국’ ‘선교’ ‘십자군’이라는 단어로 포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씨는 자신이 총재로 있던 ‘대한구국선교단’이 전국교회를 상대로 발표한 광고문에서 이러한 수법이 그대로 나온다. 최씨는 1975년 5월 발표한 광고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 교회와 귀하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한다”면서 “제2차 사업으로 임진강변(1975년 5월 11일 오후 3시) 우리의 조국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본단(本團)의 명예총재로 박근혜 선생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4차 사업으로 6월 2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강신명 목사님(세문안교회 시무)을 대회장 겸 단장으로 추대하고 복음사업을 전개하오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광고문에서 “회신 왕복편서를 발송하였으니 회신엽서가 미달된 목사님들은 직접 주소, 성명, 본적, 교파명, 교회명을 기입하여

방민’이란 가명을 쓰면서 ‘원자경’ ‘척사’ ‘태자마마’란 호칭을 자처했다 한다. 광고문은 이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씨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결합한 종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9년쯤이다. 그는 이 해 초 천주교 중립성당에서 영세를 받았고 71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호국사에서 세 종교를 복합해 장엄한 ‘영세계 교리’인

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서울 중구 회현동 사무실과 전화번호를 남겨 놨다.

1975년 5월 21일자 경향신문. 다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최태민씨가 설립한 대한구국선교단에 참여한다고 소개돼 있다.

기독교반공운동을 위해 승공(勝共) 정신을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75년 4월 발표한 이 단체에는 강신명(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훈(예장 합동), 박장원(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등 10개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언론에 나온다. 이 단체는 기독교신자까지 장설했는데 목회자 100여명이 전방 사단에서 특수군사훈련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한국교회를 이용한 행적은 75년 8월 14일 대한구국선교단, 대한구국십자군 총사령부, 대한구국선교단여성후원회 주최로 열린 육영수 여사 추모예배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예배에도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단 전문가였던 고 탁명환 씨는 ‘현대종교’ 1988년 6월호에서 “최씨는 목에다 힘을 주면서 구름 떼처럼 물러든 목사들에게 돈이 될만한 건수를 물어오면 그것을 해결하고 돈을 받아 선교회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면서 “최씨의 구국선교단 사건은 확실히 암흑기의 권력형 부조리와 야합한 우리 시대의 단막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정제도 미처 살펴볼

영혼합일법을 주장했다. 방민이란 이름으로 독경 및 안찰기도도 했다고 한다. 국정 농단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순실씨가 부친 최태민씨의 이와 같은 사이비종교성을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현대종교 이사장) 교수는 “최태민은 혼합종교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큰 영에 시절 접촉한 이후 구국선교단 활동을 위해 ‘기독교 목사’라는 위장 보호막을 둘러쳤다”며 “정치권이냐 언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최씨를 목사라고 불려선 안 되며 속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겨울이 없이 권력의 막강한 배경이 뒤에 있다는 말에 허겁지겁 뛰어들어 온통 기독교계의 물을 흐려놓은 장본인들이 오늘도 일인반구의 회개조차 없이 아직도 견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한국사회를 예견이라도 하는 듯 “한국 보수교단의 거목 김모, 지모, 강모 등은 권력의 등에 업혀 다니면서 불의에 부화뇌동하는 인물들”이라며 “언젠가는 이 사건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실명으로 기록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한국교회연합 바른수호신앙위원회 전문위원은 28일 “최순실씨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추악한 사건들은 사이비 종교인과 정치권, 권력의 유착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라며 “한국교회는 물론 교단, 목회자도 대한구국선교단 사례에서 나타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도 “한국구국선교단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중진회)’나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 ‘기독교복음침례회’처럼 형식상으로 기독교 용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반사회적 종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도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권력을 앞세워 이득을 취했고 잘못된 연결고리가 오늘의 사건을 일으켰다”면서 “한국교회는 사이비 종교집단이나 인사들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기 전 그 실체를 밝혀내고 선지자적 자세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단들 세계 속으로...선교사들 ‘경계령’

### 구원파·다락방·신천지, 아프리카·남미 등 선교지서 활개

“현지 교회들은 한국에서 온 이단 단체에서 물질 지원을 받으며 좋아한다. 그래도 다행인 게 주요 현지 교단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문의하며 검증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소규모 교회나 교단은 통제가 안 된다. 일부 이단 단체 대표는 이 나라 대통령까지 여러 번 만났다.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라 선교사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다”(잠비아 박성식 선교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이 선교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부족한 대처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국가에 따라 선교사연합회 차원에서 현지 주요 교단과 협력하며 한국 이단들에 대해 주의보를 보내는 정도다.

서울 영천교회 이용호 목사는 31일 “최근 선교지 3곳을 방문하면서 현지의 이야기를 청취해보니 공동체에 얽혀 다니면서 불의에 부화뇌동하는 인물들”이라며 “언젠가는 이 사건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실명으로 기록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선교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태국의 최홍환 선교사는 “몇 년 전부터 구원과 단체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태국에 들어오려 하고 있어 선교사회에서 이를 막으려 힘써왔다”며 “그러나 (이단들이) 워낙 티를 내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서 현지 교회들이 미혹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교사는 “선교사 연합회에서 관련 공문과 자료를 만들어 태국 교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아시아 A국 송모 선교사도 “20여년 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들이 활개를 쳤으나 지금은 구원과 다락방 신천지 등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요즘엔 영향력을 더 넓히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진본이 있는 현지인들이나 교회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정도”

## 동성애옹호 뺀 ‘바른 인권’ 널리 알린다

### 미래목회포럼, 프레스센터서 기독교인권본부 출범 준비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 준비포럼’을 갖고 동성애자들에 의해 예속된 인권의 가치를 바로잡기 위해선 교계의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미래목회포럼 부대표 박경진(대전 송촌장로교회)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적 질서유지에 크게 이바지 했다”면서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놓고 사회에선 교회가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인권본부를 통해 기독교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사·연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권고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관련 서적을 번역·출판하고 축적된 인권관련 정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윤재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세계는 지금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신본주의적 가치관이 충돌 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기독교인권본부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교회의 바른 이해와 정이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단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하고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통일교와 구원파, 예수중심교회, 하나님의교회 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한국교회 선교가 다소 취약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잠비아 박성식 선교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지 교단에 우려를 표했지만 대통령이 이단 대표를 만나 협의를 하고 정부 청소년 프로젝트와 같이 하고 있다”며 “이단에 무지한 현지인들은 물질적 도움을 받으며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단기봉사’나 ‘단기선교’의 이름으로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김모 선교사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 이단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단기교회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은 각종 물량공세를 펼쳐 현지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사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들이 많은 선교지의 특성상 가뭄일인 이단 대처까지 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이단(두란노)’ 저자인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를 통해 기독교로 위장해 포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르몬교는 개방 초기부터 몽골 교육부를 통해 인적 교류 및 도서 기증도 펼치고 있다”며 “몽골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청년층인 것을 감안하면 모르몬교 포교 활동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이단 대처에 선교사 개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연합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하고 있다. 김진대 사무총장은 “국가별로 한인선교사회가 중심을 잡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한 연합조직을 구성해 이단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기관 통합’ 올해 안에 끝내겠다

###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현교단장 취임 축하예배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한국교회교단장회의(교단장회의)가 ‘올해 안 연합기관 통합’이라는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현 교단장들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신임 교단장 취임축하예배를 드리고 교단연합과 일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리더십 교체를 단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및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일부 교단 신임 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였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예배에서 예장 통합 체영남 전 총회장은 자기 교단이 가주의를 버리고 타교단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이틀 뒤 취임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면서 “금년 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꼭 하나 될 수 있도록 양장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후임은 전명구 인천 대은감리교회 목사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어 “교단장회의가 신임 총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힘을 받아 잘 나갈 것으로 믿는다”면서 “전임 교단장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에 신임 교단장들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연내에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동성애와 이슬람 등 반기독교적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목소리

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취임축하예배에선 신임 전명구(기감) 김선규(합동) 신조광(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여성삼(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성희(통합) 유관재(기침) 이종승(대신) 최철용(합신) 총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합동총회,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등 7개 교단 전·현 총회장과 예장 합신도 개혁, 피어선 등의 교단장들도 참석했으며 각 교단의 실무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교단장회의의 차기 모임은 다음 달 24일 오전 7시 30분 같은 곳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100만명 전도’ 선포... “어려울 때 부흥운동”

### 기감 제32회 정기총회, 전명구 신임감독회장 취임사

“100만 명 전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불꽃교회에서 28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전명구 신임감독회장은 이 같이 취임사를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교회는 세속화와 목회자의 이탈, 대사회적 신뢰도 하

락 등으로 성도가 감소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담대하게 부흥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미자립 교회 모두를 살리는 공동의 부흥운동을 전개해야 해야만 한다”며 “부흥시대가 끝났다는 자조적 분위기

를 버리고 본부와 연회, 지방회, 교회 모두가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회와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전 감독회장은 이 밖에도 향후 4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했다. 먼저 학원을 넘어선 평생 인사를 실시하고, 강하고 작은 교회 육성을 하겠다고 했다. 또 교회학교 박람회 및 교사대회 등을 활발히 열고 유익한 교재를 개발해 다음세대 양육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고령화에 맞는 교회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교단 내 목회지원센터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목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내년이 남북통일의 원년이 되도록 통일운동에도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목사 연금, 자산은 통합이 최다...수혜자는 기감

### 8개 교단 연금실무협 자료

개신교단 가운데 연금을 운영 중인 8개 교단의 평균 가입률은 48.6%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총 자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35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혜자 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1714명으로 최다였다.

27일 예장통합·합동·고신·기감 등이 속한 8개 교단 연금 실무자협

의회(연금실무협)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연금 가입자 수는 3만 8700명으로 전체 가입 대상자(7만 9698명)의 48.6%였다(표 참조).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감이 95.2%로 가장 높았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교단이 각각 92.5%, 82.0%였다.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통합의 경우, 5.5%로 가장 낮았다.

연금을 납입하는 형태는 주로 호봉제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예장 합동·통합·고신 교단 등은 매월 표준 호봉의 10~18%를 납입도록 하고 있다. 수혜 내용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 기감의 경우, 시무 년수 1년 당 2만3000원씩 계산해 20년 시무했을 때 월 46만원씩 받는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는 월 평균 연금 불입액의 130%를 수령한다. 연금 수혜자수는 기감이 1714명으로 가장 많고, 예장통합(806명), 기성(684명) 등의 순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

사) 주최로 서울 마포구 공덕교회(이금만 목사)에서 열린 ‘바람직한 은퇴문화 정립을 위한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박영근 부장은 “현재 교단별로 운영 중인 연금제도의 시급한 개선점은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 변화와 감소하는 교회 수에 따른 대처”라며 “각 교단마다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성서공회, 우간다에 루마사바어 성경 5100부 기증

대한성서공회는 경기도 남양주 충신교회(안성덕 목사)와 이재성 은퇴문화 정립을 위한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박영근 부장은 “현재 교단별로 운영 중인 연금제도의 시급한 개선점은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 변화와 감소하는 교회 수에 따른 대처”라며 “각 교단마다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간다의 성경 대부분이 공식 언어인 루간다어와 영어로 돼 루마사바어를 사용하는 바마사바 부족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

루마사바어로 처음 번역된 성경은 다음 달 말 우간다에 도착, 12월

중 바마사바 부족 교회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배포될 예정이다. 남양주충신교회는 설립 6주년을 맞아 전 교인이 지난달 헌금을 모아 이 사역에 참여했다.

이 장로는 2010년부터 모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헌금을 보내고 있다. 안성덕 목사는 “바마사바 부족에게 첫 부족어 번역 성경을 보내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교토소 선교칼럼 (8)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 사랑의 하나님-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도소의 채플린 목사가 저에게 긴급한 상황이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는 한 여자의 아들 크리스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교도소에서 자살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교도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정신과에서는 그가 자살 방지 구역에서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크리스가 교도소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저에게 성경에 직접적인 답이 없는 엉뚱한 질문들을 할 뿐이었습니다.

약 한달 후 평소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전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소자 중 설교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저는 예배에 참석한 재소자들 중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때 설교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명쾌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리스가 쓴 간증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곳 교도소의 대부분의 재소들과는 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마약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디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의 삶이 저도 모르게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늘 신앙 있는 친구들과 지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디다. 그래서인지 저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진 척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 그럴 듯한 대화를 하곤 했었지만 말만 번지르르했을 뿐 사실상 저는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에 가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여덟살이 지나도록 믿음이 생기자 없는데 하나님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을 시작으로 여러 종교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긴 종교여행 끝에 저는 타로카드라는 종교를 저의 것으로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항공기 정비사가 되고자 공부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뒤 형법 학위를 따서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저는 이번이 첫 번째 수감입니다. 이러한 일이 간혹 슬관처럼 반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변화된 삶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여자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위해 마약을 사는 일에 대해서는 언쟁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반대하는 저와 그녀사이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결국 그녀를 살해하는 것으로 끝나자 저는 너무나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는 대신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너무나 난감했던 저는 결국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

고 제가 한 짓과 그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죽었던 그 친구의 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들이 가지 않을 일이지만 저는 실제로 그 사건을 계기로 자살하지 않고 다시 살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막상 제가 그녀를 환상으로 보았을 때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찌지 못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괜찮아. 내가 너를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 말고 자수해서 그녀를 위해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자수했습니다.

투옥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투옥되었을 때 저는 늘 화가 나있는 상태였으며 동시에 무척 우울해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방의 어두움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저녁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2014년 7월 26일 저는 기도 중에 성령님을 체험했으며 그날 재소자실에 불이 꺼진 후,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제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올라 터질듯 했으며 모두를 깨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간신히 자제하고 대신 하나님께 "이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어릴 때 배웠던 모든 성경구절들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하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제 안에서 정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저는 이곳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는 이제 절망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에 넘쳐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의 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간증을 쓰고 다른 재소자들의 글을 수정하기도 하며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소자들을 치유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절망가운데 있는 재소자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yonghui.mcdonald@gmail.com

##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상)

(2016년 9월 27-30일 제주도에서)



노봉린 박사

AGST-Pacific 신학대학원 원장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우리는 현재 세계선교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서 아무 희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나님이 중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교운동이 실제로 두 번의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를 통하여 나타났다. 제 1회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는 2015년 5월에 홍콩에서 1,000명의 중국의 가정교회 교인들로 거행되었고 제2회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는 2016년 9월에 제주도에서 1,200명의 중국가정교회 교인들이 참석하여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필자는 2015년 5월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에서 "한국교회 선교운동 역사"에 대해 강의해 달라는 이유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1990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열렬히 일어났던 선교운동이 현재 중국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2회 "선교중국 2030년 선교대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은 김상복 목사(전 할렙루야교회 담임목사)가 말하기를 "내가 여러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보았지만 이번 같이 선교열기를 갖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중국교회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중국교회는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었을 뿐더러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 중국교회 지도자는 말하기를 "중국교회는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다고 되어 앞으로 헌신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하였다.

제 1회와 제 2회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의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다. 제 1회 선교대회는 조선족 중국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주동이 되어 특별히 도시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제 2회 선교대회는 조선족목회자와 한족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도시와 농촌의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치르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가정교회 연합운동은 중국선교를 통하여 이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의 근본적인 모토는 "2030년까지 20,000명 중국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것이다. "금일중국선교잡지"의 편집인, 다니엘린 박사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20,000명의 중국선교사를 결정한 것은 영국의 중국초대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1807년에 홍콩에 도착한 후 지난 200년을 거쳐 20,000명의 서양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서양선교사들의 빛을 갈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2015년 제 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때 강조하기를 약 1000만명의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27,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도 오늘의 중국교회는 개신교인 8000만명, 천주교인 2300만명 합하여 1억이 넘는 교인을 갖고 있는 중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비율로 따져서 20,000명의 중국선교사보다 10배가 되는 20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니 그때 모였던 중국기독교인들이 열열히 박수로 반응하였다.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의 역사적인 배경은 2010년 10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제3 로잔전도대회(3rdLausanneCongress)가 열렸을 때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230명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고 했으나 중국정부의 반대로 230명 가운데 단지 5명만이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2013년 6월에 서울에서 열었던 동북아시아 로잔코미디 주최로 Asian Church Leadership Forum이 열렸는데 중국가정교회 지도자 100명과 타국교회 지도자 200명이 같이 모여 특별히 중국교회 복음화와 선교운동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곳에서 앞으로 중국교회가 선교대회를 갖는 것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의 평가

먼저 필자는 "선교중국 2030선교대회"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지시하기를 원한다.

1. 중국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열정과 중국선교운동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는 날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교회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교회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이 성장하는 오늘의 중국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대사명(마28:19-20)을 준수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이(행13:1-5) 또한 19세기에 영국교회에서 로버트 모리슨과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에 파송한 것 같이 중국교회도 앞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전세계에 파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운동의 활성화는 두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로, 교회의 영적성장과 양적성장이 필요한 하다. 둘째로,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또한 필요하다.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이 두개의 요소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미교회에서 70,000명 선교사를 파송했고(Yohannan 2009:154) 한국교회에서 27,205선교사(KWMA 보고, 2016)를 파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선교운동의 발전이 앞으로 계속되느냐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실질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계속 교회성장의 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교회는 매년 놀라운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도 급속도로 매년 7%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근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반 기독교적인 정책과 압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교회의 선교운동의 발전은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로서 미약하게 시작할 지라도 하나님이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중국교회 전체에 앞으로 놀라운 선교운동이 확산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교회가 장래 15년간 어느 정도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가는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중국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 이유는 교회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회 지도자 양성과 선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자의 수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급속도로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놀라운 경제부흥을 이루면서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이 한국교회에 심각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간 기독교인의 영성문제와 교회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교회도 경제부흥과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더 많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교회는 중국정부의 압박과 양력 속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15년 내에 중국교회도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험과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5년내 물질만능주의가 중국교회를 휩쓸기 전에 중국교회는 많은 영적 지도자와 선교 지도자를 속히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rohonolulu@gmail.com

##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 "헌옷"

(2면에서 계속)

흡에서 자라난 식물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생명의 사이클은 뭐 하나 낭비가 없는 과정이다. 이런 100% 재활용 기술이 패션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면 의류공정이나 매장, 옷장, 중고매장, 섬유 재활용 업체를 거쳐 다시 섬유 제조공장으로 향하는 순환이 끊이지 반복될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 실을 만들고, 이를 섬유로 직조하고 옷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순수 폴리에스테르로 분해해 섬유로 직조하는 완벽한 재활용이다. 이런 원리는 천연섬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확대 가능한 100% 섬유 재활용 기술은 현실이 될 때까지 최소 5-10년이 남았다. 2014년 지속가능한의류연합이 의뢰한 보고서를 보면 천연 면소재의 의복으로 만들고 분해해서 다시 색 의복에 사용하는 100% 재사용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면을 염색 또는 화학 처리하거나 다른 소재와 혼합하면 재활용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폴리에스테르와 천연섬유 혼방 의류도 있다. 인기가 많은 소재지만 현재는 100% 재활용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은 1980년 580만에서 1997년

3400만으로 급증하고 2015년에는 1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쏟아지는 의류 생산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H&M은 이를 알고 있다. 컨서스 자선재단을 통해 섬유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인 '핵심팀' 5개에 110만 달러를 쾌척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낡은 면 의복을 면 소재로 분해해 다시 새 섬유로 방직하는 과정을 개발하는 팀도 있고, 폴리에스테르를 분해 및 소화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팀도 있다. 천연섬유와 폴리에스테르 혼방 섬유를 기본 소재로 분해해서 폴리에스테르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공정들은 순수 면과 합성섬유, 혼방섬유를 손쉽게 구분하는 기술

과 나란히 개발돼야 한다. 바깥은 면, 안쪽은 폴리에스테르로 된 재킷을 알아보는 기술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 1088만6220의 의복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끌어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수 없다"고 중고의류 수거업체 I:CO의 제니퍼 길버트가 말했다.

이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시급하게 100%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서려는 중이다. 그라야 기존 섬유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새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중고의류 시장은 크게 침체했고, 그 결과 전체 시장체계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

지금 우리는 낡은 옷을 한데 모아 섬유 재활용업체에 넘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럼 옷의 가치는 더 이

상 브랜드나 품질, 유행 여부로 결정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파운드별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상품이 된다. 지난 18개월간 중고의류의 상품 가격은 파운드 당 몇 센트로 급락했다. 달러 강세와 (중고의류의 상당 비중이 처리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져온 수요 약화, 동유럽 국가의 경기 상승, 남아프리카 최대 중고의류 시장의 화재가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다.

가격 하락에는 다른 원인도 있다. 저품질의 중고의류 공급이 꾸준히 늘어난 게 그중 하나다. "중고의류 산업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고 영국 섬유재활용협회의 알란 윌러 이사장이 지난 4월 소싱저널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의복 가격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새 옷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중고의류 가격에 대한 하부구조로부터의 압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업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거의 없어 2000년대 후반 경기대체 이후 수년간 꾸준히 상승하던 헌옷 수거율은 지난 1년간 4%나 감소했다.

의복의 품질이 계속 하락하면 세계시장의 수요 또한 하락을 거듭할 것이다. 100% 재활용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하면 중고의류 산업은 위기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버리는 저렴한 헌 옷을 받아줄 곳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 것이다.



살롬의 교육학(9)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살롬의 교육은 화해와 온전성 회복에 있습니다

교육목표가 왜 중요한가?

Stephen Covey가 1989년에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전세계 2500만부 팔린 베스트셀러로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들은 몇 가지 성격특성(습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7가지로 요약하였는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주도적이 되라, 2)목표를 마음에 두고 시작하라 3)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4)상호 이기는 싸움을 하라 5)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 받으라 6)통합하라 7)더욱 자신을 개발하라.

필자가 모든 7가지의 습관을 동의하면서 무엇보다도 두 번째 습관, 즉 목표를 마음에 두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제일 마음에 닿는다. 이는 교육학적으로 교육목적의 중요성에 해당한다. 교사가 가르칠 때 먼저 도착할 지점(목표)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교육학에서는 Standards(교육 표준, 기준)에 의거한 교육이 지배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 중 혹은 졸업 때까지 도달하여야 할 지식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한데 통합하여 영어와 수학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곧 Common Core State Standards라고 부르는데 현재 미국 50개주 중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2개 주에서 이 기준에 의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컴코어의 이론적 기반을 주었던 이론이 곧 '역방향 교수개발'(Backward Design)이라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들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교육내용을 먼저 정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평가한 후 아이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역방향(Backward) 이론에 의하면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을 실시할 때 도달하는 목표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이러한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여야 하고, 맨 나중에 비로소 학습내용이나 주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라는 것이다. 바로 필자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교육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하기 위함이다. 코비의 두 번째 원칙이나, Standards, Backward design, Common Core 등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목표의 중요성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가르쳐야 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

해 없이 교육하는 것은 자칫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마15:14). 왜 그런가? 모든 교육 내용이나 학습 교재 개발, 교육 방법 및 교수 활동, 평가 등 모든 것이 바로 목표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이 한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듯, 교육의 목적은 전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에서의 목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살롬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의 목적을 부여해 주셨는가?

살롬의 교육 목적

기독교교육에서도 목표를 명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살롬 교육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 이

은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교육학계를 지배해왔던 재생산이론(reproduction theory)은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이 교육을 통하여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주목하였고 교육의 이러한 역기능은 급기야 학교는 불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Reimer의 책 "학교는 죽었다"(School is dead), 혹은 Ivan Illich가 쓴 "탈학교의 사회"(Deschooling society)라는 책을 보라.

그런데 그들의 간과한 것이 있다. 매우 정밀한 현상 분석은 예리했을 지라도 왜 사회가 불공평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흔히 물에 잠겨있는 빙산의 비유에서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물에 떠 있는 부분만을 보고 전

화해와 평화 실현사회, 거룩한 삶, 더불어 사는 삶 만들어야 제도적 영역에서도 신앙가치 구체적 실현되는 매카니즘 성취

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교육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들 간 화해를 이루는 데에 있다. 세상에서의 교육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는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처럼 교육열이 으뜸인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도 고교졸업생이 약 63만명인데 대학입학 수는 53만명으로 나타나 약 84%의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몇몇 전 조사에서 한국인들 10명중 7명이 한국사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2011년 OECD 31개 나라 중 한국의 사회정의 지수는 OECD평균(6.67)에 못 미치는 5.89로 25위로 나타난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이 정의로운 나라인지의 문제와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많은 교육 사회학자들은 교육이 사회정의 실현과 거의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 주제는 많은 논쟁을 야기 시켜온 주제이기도 하여 필자가 굳이 여기에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사회의 불평등성, 불공정성을 주목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자본주의하에서 학교교육

제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바로 그 영역을 보는 것이 지혜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잠겨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이 죄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죄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혼돈에 빠졌음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피조세계 특히 인간의 소외, 인간간 반복과 질서, 지배하고 불화하면서 화해의 교제를 깨뜨리고 막힌 담이라는 장애를 형성하게 된다.

화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게 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화해는 인간과 하나님간의 관계 뿐 아니라 우주적 규모로 영적 세력을 포함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골1:20).

교육은 이러한 화해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 교육은 화해의 직책(고후5:18)을 맡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본질상 치유 지향적

(therapeutic)이며 구속적인(redemptive) 성격을 지닌다. 교육이 구속적이라는 의미를 Henry Nouwen은 그의 책 '창조적 목회'(Creative ministry)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교육은 교사-학생간 서로를 일깨워 주는(evocative) 상호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뢰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강, 약점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통찰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바로 이럴 때 자신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기에 교육은 교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움을 주고 교제하는 관계(bilateral relationship)라는 것이다.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 함께 의미 있는 학습과정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 토론과 질문을 교류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한 이벤트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매일의 삶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actualizing) 과정이라는 것이다. 언제부터든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라고 가르쳐 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기에 학교로부터의 졸업은 감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였고 (아이들의 졸업식을 생각해 보라), 학교 교육은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처럼 우리를

참하는 새로운 역사 창조 과정이다.

그래서 화해를 위한 교육은 교실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롬 공동체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원칙이며 개인 및 사회변화의 무기이기도 하다. 살롬의 이상이 가장 극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에서 나타난 평화의 나라이다.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꽃매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쫓겨 몇 번 어린아이가 목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사11:6-8)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이다. 서로가 달라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바로 살롬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런 목표를 교육에서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Parker Palmer은 살롬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요소로 10가지를 꼽고 있다. 1) 낮은 사람이 함께 공동의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가? 2) 낮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3) 부족한 자들을 서로 공유함으로 필요로움이 창출되고 있는가? 4) 갈등이 적절하게 드러나고 해결되고 있는가? 5)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이 나누어지고 긍정적으로 창출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6)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가? 7) 상호간 책임의식과 협조체제가 잘 발휘되고 있는가? 8) 실패 프로그램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잘 이해되며 책임성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9) 비전이 잘 구사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10)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 실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거룩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도스토예프 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내 생명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일찍이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배워왔다. 자본주의하에서 우리는 행복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 좌우됨을 경험해왔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실행해왔다. 곧 그러한 목적이 교육을 이끌어왔던 것이다. 행복을 위한 교육이기에 아이들에게는 시험성적이 곧 행복지수이고 IVY리그 학교 졸업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극심한 경쟁과 갈등, 임시 위주의 기형적 커리어즘,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목적이 왜곡되어 교육의 방법, 결과 역시 잘못된 곳으로 가고 말았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므로 교육의 목적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천만에!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제 기독교교육은 새로운 인간을 내놓아야 한다. 화해와 평화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 개인적 삶을 더욱 거룩한 삶으로 만들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며 제도적 영역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매카니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 살롬의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hlee0414@gmail.com

Advertisement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featuring various church branch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hotos of pastors.

제 9장 목회 사역 참여에 대한 사모의 유형과 장단점

목회사역에 대한 사모의 임무와 역할을 다루기 전에 우선 목회사역에 대한 3가지의 대표적인 사모의 유형을 알아보자. 적극적인 사모형, 소극적인 사모형, 마지막으로 도전해서 통째로 승부를 결정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람은 모두 가지각색이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동적인 사람도 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대담하게 정면으로 도전해서 통째로 승부를 결정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끝장을 보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에 문제로부터 탈피해 감으로 해결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남편의 목회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역자로서의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형의 사모가 있다. 혹은 소극적으로 뒤에서 조용히 협력자로서 남편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유형의 사모도 있다. 또한 목회 일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격리되어 있는 유형의 사모도 있다. 이것은 교인들의 요구나 남편 목사의 형에 따라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맡기면 그 일을 잘 해낸다. (6)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7)설득력이 강하다. (8)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문제 처리를 잘한다.

2) 단점

(1)성격이 급한 편이고 날카롭고 직선적이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 (2)이기적이고 비판적이다. (3)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자존심이 강하며 오만성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4)강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마음이 약하다. (5)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쉽게 좌절한다. (6)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편이므로 설득력이 있으나 말의 실수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7)매사에 완벽주의로 일을 철저히 처리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며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일을 혼자 다 해버리려고 한다.

현대 목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혼자 해보겠다고 뛰다가 지치고 기진맥진해 탈진해버린 사역자들도 많다. 그러나 이때마다 '에제르'로서의 사모의 역할을 잘 감

의 사모'를 원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목회 세계를 이해하고 목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사역자로, 목회 및 사회의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해 주는 정보수집자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로 성도들의 친근한 상담자로 한 영혼의 고귀함을 붙들 아는 목회자로서의 사모를 원하는 것이다.

사모단상

남편 목사의 사역파트너

필자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여성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캠퍼스 내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모른다. 더구나 한국의 1.5세나 2세대 중에 많은 젊은 부부가 배낭을 메고 캠퍼스교정을 함께 걸어 다닌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신학공부를 하며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다. 필자가 쓴 졸업 논문의 제목이 'Minister and Minister's wife: Partnership in Minist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를 위한 목회사역: 파트너로서의 목사(와 목사 사모)였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지혜로운 중(마24:45-51)찬347장

재림을 맞이할 성도가 지혜로운 중이 되어 할 것을 본문을 어떻게 말할까? 첫째, 충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45). 참다운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교적 진실함에서 생기는 바로 그 지혜가 지배하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둘째, 때를 선용할 줄 알아야합니다(46-47). 때를 따른 양식 공급은 오직 성

령의 지혜로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예민함으로 자신을 늘 무장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셋째,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48-51). 기회의 인식이 없는 종은 육신에 이끌려 자기의 탐욕을 따라가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돼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신령한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화 슬기로운 신자(마25:1-13)찬289장

얼처려 비유로 재림을 맞이할 자세를 가르치는 본문에서 슬기로운 신자의 3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등을 준비했습니다(3). 여기 등이란 재림을 맞이할 때 필요로 하는 필수품으로 여호와 경외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경건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을 준비했습니다(4). 그러나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름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 기름은 성령 혹은 성령의 역

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식은 성령의 역사의 도구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귀한 은혜입니다. 셋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9). 급한 때 다른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공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맞는 분별력을 요구하는 지혜의 요소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됩시다.

수 어리석은 신자(마25:1-13)찬480장

슬기자와 달리 어리석은 자는 한 마디로 욕에 속한 신자입니다. 그가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신자입니다. 훈련과 절제를 위해 형식이 필요하나 결단심으로 행하는 형식적, 외식적 생활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날에 대한 사모심도 없고 현실에 대한 충성이 없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회 인식이 약하니

다. 후심관심을 일부러 잊으려하는 무딘 마음은 그 긴박감을 잃습니다. 또한 종말의 위기가 다가오면 현실의 생활고의 위기가 급선무에 의해 영적 긴장을 잃어버립니다. 셋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을 어디서 지내느냐를 결정하는 그 순간을 무시하는 마음은 확신 맞은 자의 마음입니다. 정신 차려 그날을 준비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시다.

목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마25:13)찬162장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깨어있어야 합니다. 종말이란 시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 회개와 믿음으로 그 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좋은 날은 찬송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리고 일락에 대한 자극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신부가 신앙을 기다림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그날

을 모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에 그 날을 모르게 하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때와 장소와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사건의 재림을 앙망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금 충성된 중(마25:14-30)찬206장

달란트비유에 나타난 충성된 종은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첫째, 주인을 잘 알았고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주인을 바로 알 때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삼 깨달아 바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때와 같은 전철을 밟아 가장 복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둘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현재 주어진 삶에서 받

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모든 일에 성공과 승리의 원리입니다. 셋째, 열매를 남겼습니다. 비록 작아보여도 그것에 충성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해 위대한 일에 쓰임 받고 주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는 자가 복됩니다. 재림을 앞두고 이런 신실한 종이 됩시다.

토 악한 중(마25:14-30)찬544장

충성된 종과 달리 악한 종은 다음 3가지의 결함을 가집니다. 첫째, 주인을 잘 몰랐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불평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능률은 고사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잡념 모든 일에 주인의 뜻을 역행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받은 달란트와 자신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기록론적 지식이 전체의 삶을 좌우합니

다. 둘째, 작은 일에 불충했습니다. 작은 것일 지라도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가치를 알고 충성했을 텐데 그는 무지해 공연한 염려에 사로잡혀 세월만 허송했습니다. 셋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는 풍성한 열매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로 남았습니다. 재림 직전에 우리는 악한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4)



이희숙 사모

되기도 하고 혹은 사모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교회와 목사 그리고 사모 개인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와 사역의 차이를 보이는데 타인의 의해서든지 자신에 의해서든지 제각각 사역의 다른 면모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목회 사역에 매우 적극적이며 동역자로서의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형의 사모가 있다. 혹은 소극적으로 뒤에서 조용히 협력자로서 남편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유형의 사모도 있다. 또한 목회 일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격리되어 있는 유형의 사모도 있다.

1. 적극적인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사모형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사모는 대부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성격도 외향적이며 개성이 뚜렷한 편이다.

당하면 목회자인 남편에게 큰 활력소가 되어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목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목사의 아내의 목회자도 아니고 교인중의 한 사람도 아닌 완충지대에 있어야 한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목회에 간섭하지 않고 말없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가거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모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필자는 목회사역 당시에도 남편 목사의 사역에 파트너로 동참하였지만 은퇴 후에는 더 자유롭게 목사님과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하며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한 강의 또한 문서 선교 방송선교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교회에 급성장하던 1970-1980년대에 목회하던 목회자들은 사모들에게 순종과 절제만을 요구하였다. 사모는 가정에서 목회자의 뒷바라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테크놀로지 목회에서는 사모에게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다운 동역자로서

우리 부부의 사역을 바라보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부부께서 모두 부럽다고 하시며 롤모델이 된다고 하며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하신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기와 도전을 주면서 격려해 드린다.

hslee39@sbcglobal.net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 pastor name, and phone numbers. Churches listed include Galbraith, Wungo, Bick's, Benel, Bosner, Sallot, and others.

# 인/터/뷰

##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가 미주내 한인신학교 최초로 음악박사과정을 개설한다.

음악과장 윤임상 교수는 "지난 10월 3일부터 ATS에서 저희 WMU를 방문해 실사에 들어갔으며 음악과도 찾아와 음악박사과정 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가 실시됐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실사를 통해 WMU의 음악박사과정 개설은 매우 긍정적이며 승인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WMU는 음악박사과정 개설을 위해 지난 6월, ATS에 학위과정개설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으며 ATS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실사 스케줄에 맞춰 심사관들이 학교를 방문하게 됐다. 윤 교수는 이번 실사에 내려진 평가는 매우 파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ATS에서 저희학교 음악박사과정 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요. 이유는 12년이란 짧은 역사 때문이고 소수민족인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저희학교를 방문해 실사를 하면서 ATS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ATS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WMU 음악과의 지난 12년간의 실적이 크게 작용했다. △해마다 두 차례 열리는 학생연주회와 라크마와의 협연을 통해 지역사회 음악문화를 나누게 된 것 △월트디즈니홀에서 타민족과의 교류 및 윤학원코랄을 비롯 테너 배재철, 소프라



ATS 실사팀이 월드미션대학교를 방문했다 (뒷줄 중앙 윤임상 교수)

## 월드미션대학교 한인신학교 최초 음악박사과정 개설 눈앞에 박사과정개설 위한 ATS Focus Visit에서 긍정적 반응 얻어

노 김영미 등을 초청해 함께 연주회를 가짐으로 한국 음악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점 △WMU출신 음악인들이 한인교회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라크마 합창단에 WMU 출신들이 멤버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또 LA신포니에타 상임지휘자 김용제 씨는 지난 2015년 아드리안 국제 지휘경연대회 우승했으며, MI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이은정 과 윤국형, 채영석과 이나은은 클레어몬트대학교 박사과정, 신신미는 USC 대학원 연주자 과정, 코랄레움 선교합창단 지휘자 이경원, 오페라

캘리포니아 지휘자 이현진, 영엔젤스 합창단 지휘자 조현주,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클라라김, 김희우,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등은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여해 수준 높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준 높은 본교 음악과 교수진들도 한 몫 한다. 또한 미국의 3대 지휘자인 전 이스트만음대 교사이자 UCLA학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도널드 뉴인 교수가 WMU 방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음악박사과정 개설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윤임상 교수는 내년 1월 중순에 열리는 ATS 미팅에서 WMU의 음

악박사과정 개설여부가 최종 결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심사에서 가장 좋은 평가 내려진 점과 방문팀의 심사관들이 ATS 미팅에서 추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실상부한 한인신학교 최초의 음악박사과정 개설은 기정 사실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봄학기부터 WMU에 음악박사과정 클래스가 시작된다.

윤 교수는 WMU의 음악박사과정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현재 교회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음악이 위협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음악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을 추구해야 하는데 너무 예술적인 면에 치중해서 교육이 이뤄졌습니까"라고 지적하며 "교회음악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술성과 영성이 겸비돼야 합니다. 또한 저희 WMU 역시 이에 걸맞는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찬양대를 지도할 때 음악적인 스킬 부분을 세밀하게 다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찬양 한국을 지도하더라도 그것이 신앙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WMU는 오는 11월 12일(토)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 교육관 2층 식당에서 뱃짓을 겸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어떤 것보다, 예배와 말씀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며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해결되어야 함을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통을 피하는 조건으로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찬송을 하여도 빠져들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울림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잠오지 않는 밤에 수면제로 좋다는 이상한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곤란한 것이다.

당장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죽고 사는 것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린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죽을 것인가? 삶을 포기할 것인가? 사업의 문제 있을 때 마다, 접고 창업만 할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개미들에게는 파인애플 떨어지는 소리가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된다. 믿음의 분량이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않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담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상의 문제 앞에 호들갑떨지 않게 된다.

말씀에 대한 앎, 신앙의 고백, 거룩한 결단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30%, 감정의 영향이 70%를 차지한다. 사람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보다, 감정과 기본대로 살아가는 존재에 더 가깝다는 말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마음이 안 내켜서, 기분 나빠서 안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란, 기분이나 감정의 요인보다는 말씀에 대한 앎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니까, 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 섭리의 손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향한 자신의 눈-고집스런 불신앙의 관점의 눈에 빠져드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리한 영적감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신지식(Knowing God)과 성령계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는 기도의 영성은, 문제 속에서 자신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다루게 한다. 그것을 '섭리적 해석' 혹은 쉽게 '하나님의 손과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름답고 향기 나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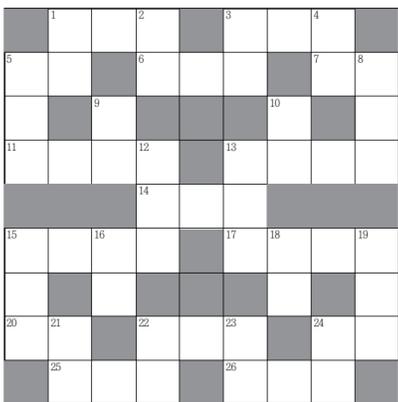
영적인 본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생은 잃은 무성하고 열매도 잔뜩 달려있지만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찬 들배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열매 없는 지루한 신앙생활의 여정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에 매이지 마라.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손/눈)의 역사이다. 말씀을 아는 자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다. 마침내 풍량 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분따라-감정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davidnjon@yahoo.com

## 십자말 • Cross Word (146)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 <가로 푸는 열쇠>

-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사21:7).
- 올리브 기름(눅7:46).
- 찬송가550장 "OO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숙죄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출21:30).
- 땅 따위를 거두지 아니하여 매우 가짐(창23:29).
-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에2:5).
- 아텐에서 바울과 장론한 철학자(행17:18).
- 땅이 움푹하게 패인 곳(창14:10).
- 높은 곳에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기구(창28:12).
-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천명을 죽인 곳(삿15:17).
-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요8:22).
- 아시아7교회 중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교회가 있는 곳(계2:8).
- 받아서 처리함(사1:23).
- 사건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사람(욥23:7).
- 신분이 높은 부인(에1:18).

### <세로 푸는 열쇠>

- 유대의 구름지, 십과 갈멜 부근에 있는 성읍(수15:55).
- 값을 지불하고 형벌과 죄에서 구원함(출13:13).
-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고 감시함(렘36:5).
- 비금속 원소의 하나, 성냥의 원료 및 약용으로 씌(계20:10).
- 남편의 부모.
- 전쟁에 쓰는 기구를 쌓아두는 곳(사39:2).

- 마리아가 주님 밭에 부은 비싼 향료(막14:3).
- 초등학교 선생(골2:20).
- 울렁이가 자라사...(출8:4).
- 사사 예훗이 모압왕 에를론을 죽이고 이곳으로 도망하였다(삿3:26).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에서 난 사람(히12:8).
- 운수가 좋음(행26:2).
- 예수님의 조상, 엘르아살의 아들(마1:15).
- 유대 풍속을 좇는 유대인을 가리켜...(요20:16).
- 마음을 꼭 작정함(눅21:14).
- 침에서 난 아들(창25:6).
- 말과에 속함, 말보다 작음(눅19:33).
- 여러 사람(창33:15).

### 십자말 정답(146)



### 십자말 정답(145)



# 제9회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 |



Soprano Julie An



조이율음악예술합창단



KAMA Boys & Girls Choir



제미기독예술합창단

2016. 11. 13 | 주일 저녁 6시

장소: 일서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문의: 총무, 백선용 목사 Tel: 213.550.8778 무료입장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단장  
백재용 목사



지휘  
이태이팅 목사



반주  
은신그린 집사